

# 於斯夏



横城文化院

## ■ 표지설명

넷가에 나가 본 적이 있다.  
요즘엔 넷가의 즐거움이 없어진지 오래다.  
즐거워야 할 넷가에서 낯을 밝게 할수  
없는 것은 왜 일일까?

버들가지들이 말라 비틀려 있고 줄기엔  
비닐옷을 입혔다. 뿐인가? 형짚 끈,  
나 몰라라고 버린 그런 것들이 나의  
얼굴을 찡그리게 한다.  
조금만 신경써 우리자연을 보호하면  
좀 좋을까?

자연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님을 모두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 斯 羅 志

第8號

橫城文化院

---

##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轉換期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 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業績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證明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의 正統性을 이어 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淸박한 頽廢風潮를 一掃하여 藝術을 확고한 傳統 속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淸々한 主體性에 뿌리 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 意識과 史觀을 바로 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 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 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年 10月 20日

## 차 례

### 발간사

횡성문화원장 .....	윤재택/11
횡성군수 .....	김세기/12
횡성군의회의장 .....	이일영/14

### 논단

지방자치의 속성수가 아니다 .....	조상현/16
원이야기 .....	김승기/21
청소년범죄문제 .....	최성침/28

### 시

老 詩人 .....	곽영기/30
사장님 .....	곽영기/31
섬강 .....	곽영기/32
DESSIN .....	김량수/34
낙엽의 일생 .....	강정식/35
아들의 용돈 .....	강정식/36

### 동시

프리즘 .....	김성기/37
겨울눈 .....	김성기/39

### 한시

歎水沒地(甲川貯水池) .....	김기원/40
秋聲 .....	김태진/41
願南北平和統一 .....	송인석/42

### 향토사순례

최양옥의 구국운동 .....	박순업/43
두보의 시감상 .....	최성침/47

### 향토사연구

애항심 함양을 위한 지명유래 고찰 .....	박순업/52
--------------------------	--------

### 수필

마지막 이발 .....	탁락구/57
덧 .....	권용환/59
잃어버린 동심(童心) .....	최증식/64
황소갈보 .....	백영호/67
애기막내 .....	김중구/71

### 동화

아파트 .....	임교순/73
-----------	--------

### 학생문예

봄바람 .....	황성국교 4년 박혜빈/79
봄바람 .....	황성국교 5년 강영지/81
봄바람 .....	용둔국교 5년 박설화/82
봄바람 .....	우천국교 6년 박지영/83
봄바람 .....	창림국교 6년 김영주/84
봄바람 .....	황성국교 6년 이규용/85
민들레 .....	대동여중 3년 이화순/ 86
초승달 .....	서원중 3년 이은자/ 87
민들레 .....	우천중 3년 홍정훈/ 88
꽃씨의 거듭남 .....	황성여고 2년 장지혜/ 89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	청일국교 6년	공분선/ 90
우리엄마 .....	성남국교 4년	허선화/ 91
우리엄마 .....	덕천국교 6년	손은경/ 92
우리엄마 .....	우천국교 6년	강영순/ 94
우리엄마 .....	황성국교 6년	이석정/ 96
우리엄마 .....	황성국교 6년	윤복희/ 98
희망의 새싹 .....	우 천 중 2년	박복녀/ 99
고향의 봄 .....	둔 내 중 2년	김정하/101
고향의 봄 .....	공 근 중 2년	오영숙/103
우리마을 .....	황성여고 3년	진경미/105
어머니 .....	황성여고 1년	박순미/107

#### UN가입경축 글짓기 작품

우리나라 좋은나라 .....	황성국교 6년	이석정/112
기쁨의 날 .....	황성국교 4년	박혜빈/114
통일이 어서오길 .....	성북국교 3년	김은영/116
우리도 할 수 있어요 .....	공 근 중 2년	원현식/117
따로 따로 다시 하나로 .....	대동여중 2년	최혜숙/119
긴급뉴스 .....	우 천 중 2년	장하용/121
마음의 문이 열린 한반도 .....	황성여고 2년	박윤희/123
세계로의 발돋움 .....	둔 내 고	이미자/125
91년도 문화사업 .....		127
임원 및 회원명부 .....		130

화 보



제 10 회 어린이동화대회 구연 장면



유적지 순례중 태종대에 관해 설명하는 최성침 선생님



청소년 사생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그리기 장면



UN가입 경축 청소년·학생 백일장

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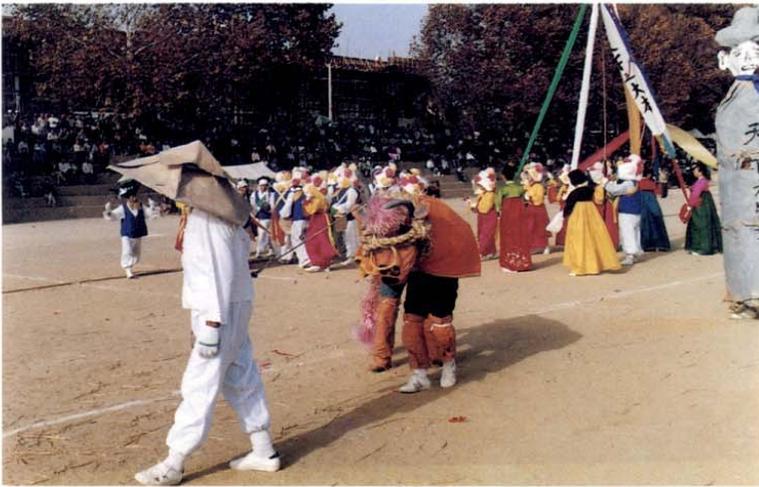
단오절 민속 씨름대회에서 경기하는 장면



단오절 민속 그네대회에서 경기하는 장면



마을농악 경연대회의 한 장면



마을농악 경연대회의 한 장면



## 發 刊 辭



橫城文化院長 尹 載 宅

潛在된 郷土文化를 찾아 生活文化에 接木하고 未來指向의 文化素材들을 모아 紹介하여 地域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한 本誌의 第8號 發刊을 맞으면서 恒常愛讀하여 주시는 文化同好人 諸位께 感謝드립니다.

今盤 急變하는 世界흐름속에서 우리의 傳統文化를 우리가 찾아서 繼承發展할때 모름지기 美風良俗에 愛郷愛族하는 새싹들이 돌아나고 우리의 이웃부터 온 地域으로 이어지는 精神文化生活을 日益 向上케 되어 더욱 文化의 所重함을 가지게 합니다.

앞으로 於斯買는 우리 地方文化의 흙내음이 담긴 素材들을 모아 地域文化誌로서의 使命을 다하여 物質萬能時代에 現代人 生活에서 무엇보다도 精神文化開發에 큰 몫이 되어지도록 講究코저 합니다.

恒常 地域文化事業에 獻身的으로 奉仕하여 주시는 編輯委員과 素材를 寄稿하여 주신 여러분께 感謝드립니다.

## 地方化 時代의 文化院의 役割



橫城郡守 金世基

향토문예지 “於斯買” 제8집 발간을 축하하며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지방문화 발전을 위하여 정열을 다하고 있는 횡성문화원과 문화예술계에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의회 개원과 내년에 실시 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마치면 민주정치의 원초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완비하게 되어서, 그동안 갈망해 오던 자치행정을 완전하게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는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완비만으로는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정착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무엇보다도 정치, 행정을 비롯한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도가 중앙의 통제에 익숙해 있던 우리로서는 지역내의 모든 일을 지방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또한 많은 시행 착오도 예상되며, 특히 중앙정부에 예속되었던 많은 권한을 이양받게 되므로서 주민자치의 영역의 폭이 넓어 지는 반면, 지방재정은 더욱 압박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의 주체인 주민의 자치역량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제도에 걸 맞는 주민상을 건립하고 자율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성공여부의 관건이며 이에 대한 주민운동 창구로서의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고 또 기대되는 바입니다.

앞으로의 지방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문화원이 먼저 지방의 뿌리라 할 수 있는 향토의 특색을 살리고, 그 지방의 전통성을 오늘에 되살려 주민의 정신적 지주로 삼는데 앞장서 주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애국의 고장”임을 실제적으로 입증하고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밖에서 횡성을 볼 때 역시 “그 고장은 애국의 고장이구나”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민의 개성과 기질을 살려, 그것이 우리의 군민성으로

---

자리 잡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지역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같은 정신적인 결집을 통해 주민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80년대 이른바 자유화 이후에 팽배한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혼란과 국가발전의 퇴보란 뼈아픈 경험을 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그 후유증으로 국가경제 전체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와 내 마을에는 조금 불편하고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 모두의 편익과 발전을 위하여 큰 도움이 된다면 조그마한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민 대화합 운동의 전개가 요구됩니다.

또한 고도의 경제성장과 물질문명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한 바도 없지 않지만 그 역효과로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앞으로 성장과 발전이 가속화 될수록 문화에 대한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의 골은 더욱 깊이 패여질 것이며, 그만큼 이고장 주민들의 문화, 교육,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원이 지역문화의 창구로써 그리고 구심체로써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민 정신운동과 더불어 문화원의 주요기능이기도 한 문화, 예술 등 본연의 활동과 함께 우리고장이 쾌적하고 윤택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풍요한 삶의 터전"으로 발전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껏 문화원이 노력해 온 각종 문화예술 행사와 전승문화의 발굴과 계승 발전 등 문화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하여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 문화, 주부문화, 농촌문화에 이르기까지 지금껏 소외되어 왔던 영역에 대하여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업이 단시일내에 성과를 거둘 수 없고 현재의 문화원기능과 재정으로써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모든 문화계 인사들께서 향토문화 발전에 애정을 갖고 꾸준히 추진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고, 주민의 참여의 폭도 확대되어 문화원의 활성화는 물론 명실상부한 지방문화의 산실로 자리를 잡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모쪼록 문화원이 주민과 함께 노력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이 우리고장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기둥"으로써도 정착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 지방자치시대에 주인정신을 갖고 내고장을 가꾸자 !



황성군의회의장 이 일 영

생동하는 파아란 새싹이 온 대지위에 돌아나는 희망의 계절 4월에 온 군민의 성원과 희망을 가득 싣고, 지방자치제가 출범된지도 어언 6여개월 !

어느덧 황금빛이 넘실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다.

올해는 지방자치제의 원년의 해로서 많은 군민의 성원과 격려속에 미지의 향로를 개척하며, 앞서가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며, 순항하여 왔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의원상근제를 통한, 적극적인 여론수렴과 설문조사 등을 통한 군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불매, 내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군민의 애향심과 높은 주민자치의식에 감탄과 고마움이 앞을 선다. 주로 대두된 내용은 환경오염과 공해문제, 농로포장, 농산물 직공판장 설치, 도시계획 재정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및 문제점 해결요구,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내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지만, 주로 우리 생활주변에 밀접한 내용들이라 하겠다.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처리하고 통치하는 제도라 하겠다.

중앙집권제의 통제와 획일화된 행정구조에서 탈피하여 우리지역 주민 스스로 투철한 주인정신을 갖고 모든일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아가는 것이며, 지방자치를 통하여 양보와 타협을 배우고 스스로의 인품과 역량을 상호 교환하여 나의 존재의식을 일깨워주고 타고난 각자의 능력을 계발하고 함양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원천이며 실천도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자치제는 무조건 나의 생각대로 행동하며 나 좋은대로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방임주의적 상태를 이야기함은 아니다.

민주지방자치제는 항유할 권리가 누구에게도 있는 반면에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이다.

일정한 법과 규율속에서 서로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며 상호신뢰하여 양보와 타협

---

으로 공익을 위하여 공동대처해 나아갈때 지방자치는 살찌며, 꽃이 피고 보람의 열매를 영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횡성은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듯이 예로부터 애국의 고장이요 교통의 요충지이며, 산천경계가 수려하고 풍흉의 차이가 별로없는 복받은 땅으로 알려져 왔다.

우리는 복받은 내고장을 더욱 살찌우고 가꾸어서 우리의 후배와 후손에게 살기 좋고 복받은 삶의 터전을 물려주기 위하여 각자 스스로 노력하여야겠다.

나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나혼자서 처리하고 힘든 일은 이웃과 힘을 합하여 처리하고 더 큰일은 지역주민 전체가 이기심을 버리고 협심하여 공동대처해 나아가며, 이웃의 어려움은 내 일같이 생각하여 상부상조하고 혼동의 세태에 편승함이 없이 각자가 주어진 일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소임을 다할때, 주인정신을 갖고 자발적으로 내고장을 위하여 노력할때, 미래의 축복받는 횡성이 될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살아가자!

## 地方自治는 速成樹가 아니다. 對話를 통한 妥協의 訓練이 필요



楊口副郡守 曹 尙 鉉

이제 우리는 民主化의 試金石이라 할 수 있는 地方自治의 문을 30년만에 다시 열면서, 이번에는 정말 한치의 試行錯誤 없이 우리 風土속에 뿌리내릴 수 있는 명실공히 韓國的·地方自治의 나무를 심어 튼튼하게 가꾸어 나가야할 시점에 서 있다.

더구나 앞으로 2000년대에 이르는 10여년은 우리나라 경제의 선진화와 더불어 정치의 민주화가 착실히 진전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 될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학교”이자 “민주주의의 훈련도장”이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着根 成長하느냐의 여부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민주주의의 成熟을 가름하는 歷史的이고 時代的인 일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50년대, 6.25의 와중에서 실시해 본 지방자치를 통하여 얻은 값진 經驗을 오늘의 소중한 敎訓으로 삼아야 하겠다.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制度일지라도 그 여건의 조성없이 이상적인 제도만의 급진적 채택은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오기 쉽기 때문이며 또한 아무리 잘 다듬어진 정교한 법령이나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올바르게 運營하려는 의지와 또 그를 運用할 수 있는 능력 없이는 도리어 역작용과 폐단을 가져올뿐더러 단시일 내에 어떤 성과를 바라거나 한꺼번에 모든것을 해결하려는 과욕이나 성급함은 그 목적달성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하겠다.

地方自治란 위에서 주어지거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地域住民들이 스스로 만들고 키워나가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하는 마당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것은, 지방자치란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환경과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하여 이룩되는 매우 다양한 제도로서 분명 지역주민의 精神的 價値의 產物이며 生活樣式의 표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단기간 내에 서둘러 간단히 해치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6.29민주화선언 이후, 閉鎖와 他律에서 開放의 自律化로, 單純과 劃一에서 分業의 多樣化로의 한국사회의 時代의 흐름이 급기야 自治的 地方化社會로 이어지면서 일시에 몰고 온 우리社會의 분출하는 欲求와 葛藤과 利己主義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지방자치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또한 만만치 않다.

지방자치제도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自治團體가 그 지역의 일을 주민의 意思와 責任 그리고 負擔 아래 自律的으로 처리해 나가는 民主的인 地方行政制度”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민들이 代表로 뽑은 團體長(앞으로 選출할)과 議員 그리고 住民이라고 하는 3극 구조 속에서 필연적으로 야기 될 階層間, 地域集團間, 個人間의 對立되는 價値觀이나 相衝되는 利害關係를 각자의 활발한 相互作用을 통해 調停되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아직 그런 共同體意識이나 對話와 妥協의 訓練이 되어 있지 않다는데 또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곧고 바른 地方自治의 나무가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課題는 무엇인가.

가령 植物이 모래밭에서 자랄 수 없듯이 한 그루의 나무가 성장하는데는 肥沃한 土壤과 적당한 降水量이 필요한것 처럼 地方自治라는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肥料·水分·햇빛과 같은 住民들의 自治風土가 조성되어야 하고, 아울러 團體長이나 議員들은 나무줄기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 덩굴치기등 雜木의 下刈作業과 같은 꾸준한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장구한 세월을 거쳐 地方自治가 제자리를 잡기까지 歐美여러나라의 주민자치사를 살펴보면 中央權限의 地方移讓·擴大·地方財政의 擴充問題·地方行政수행能力的 확보 등 우리에게 있어서 고치고 바로잡고 준비 해결해야 할 일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겠으나 현실적으로 우리 實情에 맞는 주민자치를 정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오랜기간 中央執權體制가 지속되어 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地方公務員들의 權威主義·劃一主義·依他心 등 비민주적 慣行과 意識을 전환시켜 專門性和 創意力 自律性이 결여된 현재의 地方行政能力的 수준을 높여야 하겠다는 것이 그 첫째이고, 둘째는 지방자치의 主役인 주민들의 民主的 自治意識의 함양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 두가지 문제 즉 自治團體의 살림을 맡아 꾸려가는 地方公務員들의 思考 내지 行態의 轉換模型과 제자리에 정착되어야 할 住民들의 自治

---

意識 分野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 바뀌어야 할 公職哲學의 轉換模型

地方自治團體에 근무하고 있는 地方公務員은 그 地域社會의 발전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향도요 기수이다.

따라서 이제 막 地方의 時代를 앞장서 열어나가는 地方行政人들에게, 그들의 머리 속에 고정관념처럼 굳어져 惰性化 되어 있는 上級機關의 指示 一邊倒에 의해 형성된 “中央의 論理”에서 벗어나 分權·多様·均衡·自主를 추구하는 “地方의 論理”로 그 思考가 바뀌어야 하고 그 行政行態는 “官中心 文化”에서 住民 中心 文化”형태로 意識의 전환이 앞서야 한다.

그래서 地域의 모든 행정은 그 지역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금까지의 短期眼目에서 長期眼目으로, 外形的 價値에서 內在的 價値로 알차고 실속있게 地域 나름의 독특한 個性을 살려 設計되고 裁斷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思考의 전환을 통하여 모든 지방공무원은 地域住民의 愛郷同參 意識을 모우는 求心體로서의 地方行政人, 品格높은 地域開發에 앞장서는 匠人으로서의 지방행정인, 地域固有의 文化性 創出者로서의 지방행정인, 所得을 住民과 연계시키는 유능하고 성실한 仲介人으로서의 지방행정인, 地方財政의 擴充을 위한 創意的 企業家로서의 지방행정인이 되겠다는 能動的이고 自信感에 찬 公職哲學의 일대 변화를 앞당겨야 하겠다.

#### 定着되어야 할 民主的 住民自治意識

30년만에 실시하는 우리의 地方自治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단순한 民主主義의 地方分權이라고 하는 제도적 차원에서 볼것이 아니라, 民主的 市民意識과 태도, 參與와 自治意識 地域共同體의 개발과 住民福祉 실현에 대한 成熟된 住民들의 意識전환이 그 열쇠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원래 民主主義는 효율적 協同體制이기 때문에 民主社會의 主人은 어디까지나 그 구성원인 住民이며, 여기에는 그 住民들이 그 사회의 주인이라는 主人意識이 전제되어야 한다.

주인의식 또는 주인정신이란 그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주민들 모두가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생각하고 의논하고 노력하고 참여하

여 그 결과에 대하여 주민 모두가 責任을 지는 정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住民 모두가 내 고장 사랑, 내 고장의 자랑을 드높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 郡, 우리 道에 대한 관심과 愛着心, 矜持와 自負心이 없는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에게서는 건전한 지방자치의 原動力인 自治意識과 參與意識이 움터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살고있는 고장의 自然과 風物, 代를 이어 이끼 끼고 앙금진 歷史와 傳統, 귀감이 되는 人物과 색다른 文化등 유형무형의 내 고장 자랑을 통해 一體感과 共同連帶意識을 키워나갈 때 그 속에서 은연중에 생기는 自矜心과 協同心 그리고 信賴와 和合은 민주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德目으로써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나무에 더 바랄데 없이 긴요한 거름이요 滋養分인 것이다.

그러므로 주인정신을 저버리고 傍觀의인 나그네 精神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 鄉土에 대한 所屬感은 물론, 민주시민으로서의 主權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에게 흔히 주인정신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은 지난날 封建的 被植民 잔재 의식 외에 遵法정신의 결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민주사회의 준법정신은 어느 한쪽만의 遵守만으로 이룩되지 않는 것이기에, 각계 각층이 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긍지를 갖고 법을 지킬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시민사회에 있어 주인정신 못지않게 요구되는 것은 自律精神이다.

자율정신이란 自身이나 自己集團의 잘잘못을 스스로 評價하고 改善해 나가는 자세이다. 따라서 自律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남의 支配 밑에서 행동하게 되는 他律을 불러들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인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가 올바르게 실시되려면 각자에게 맡겨진 責任을 스스로 다해야 한다. 義務와 責任은 共同體意識과 相通하고, 그래서 오늘의 현대사회는 모든 개인의 利益과 權利가 복잡하게 얽힌 전체사회를 통하여 保障되고 增進되게 마련이다.

나의 이익과 共同體의 이익을 전혀 별개로 생각하고, 나의 이익을 챙기는데는 철저히하면서 公共利益에 무관심한다면 주민자치는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혹시 地方自治를 "주민 마음대로 행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라거나 "아무리 國家的인 일이라도 내 지역에 손해되는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분명 地方自治를 잘못 理解한데서 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公共性에 대한 이해가 낮고 個人이나 地域 利己主義가 팽배하는 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民主主義란 상대방의 意思를 尊重하고, 설사 서로간의 意見이 좀 다르더라도 民

---

主的으로 導出된 結果에 대해서는 깨끗이 승복하는-, 對話를 통한 理解·讓步·妥協이 그 관건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國民意識이 아직도 前近代의인 因習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다 對話와 妥協의 훈련 마저 되어 있지 않다는 점. 바로 이것이 오늘 날 우리 우리 지방자치의 무거운 짐이 되어 발목을 잡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自由만을 내세우며 放縱과 무질서한 행동을 일삼는다면 그는 지역사회의 올바른 주인이 될 수 없다. 자기의 責任은 등한시 하면서 權利만을 주장한다면 지방자치는 이룩될 수 없다.

남의 人格과 權利는 무시하면서, 自己利益만을 추구하거나 特權意識을 가지고 법과 규정을 어기려 한다면 그는 분명 지역사회의 존경받는 有志나 指導者로서의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

自己의 主張만을 내세우고 남의 意見을 無視하려 든다면 어찌 그런 사회풍토 속에서 지방자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地方自治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민주주의의 訓練道場"임에 틀림없다.

요컨대, 민주주의의 바탕인 地方自治의 성패는 서로간의 相衝되는 利害關係를 원만히 조정할줄 아는 對話를 통한 理解와 讓步와 妥協의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住民들의 성숙된 民主的 資質과 力量에 달려있는 것이기에, 地方自治란 마치 온갖 風霜을 견디며 자라는 長期樹와 같은 것이지 결코 2~3년안에 다 자랄 수 있는 速成樹일 수가 없다.

우리 모두 참되고 올바른 地方自治의 싹을 피우기 위해 잘못된 생각이나 바로잡아야 할 일들을 한가지씩 고쳐가면서 풀뿌리 民主主義의 터전을 닦자.

그래서 인심 좋고 살기 좋은 내고장, 他地域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地域社會를 다듬고 가꾸어 나가자.

- 
- 曹尚鉉/ ○ 1935年 橫城 晴日 柳洞 出生  
○ 1954年 橫城農業高等學校 卒業  
○ 1958年 江原大學校 畜産學科 卒業  
○ 1988年 在春川 橫城郡民會長  
○ 1988年 江原道廳 花城會長  
○ 現在 楊口副郡守

## 怨 이야기 이 땅, 여자의 삶에 대한 조명

橫城郡廳 金 承 基

이 땅에 살았던 여자의 일생은怨의 삶이며怨의 역사였다. 그들에게는 의무만 부여되었을 뿐, 어떠한 권리도 주어지지 않은恨의 세월이며 기나긴 어둠의 桎梏이었다.

우리의 여자들은 우리가 말끝마다 자랑하는 반만년 역사상 2 100분의 1남짓(해방전후로 50년?)한 기간만 빼어놓고는 차라리 진정 인간이기를 포기해야했다. 물론 한시대를 風靡했던 특별히 선택된 女傑들을 제외하고 말이다.

차원높고 유식하게 말해서「男尊女卑」「男女差別」이니 표현했지만 그것은 차라리「男子獨存」이요 여자는 존재의 無였다. 막말로 쉽게 말해서 사람취급조차 하지않았다는 이야기다.

아직도 우리네 기억에 그리고 오늘날 생활속에서 까지도 여성에 대한 무시차별, 학대 편견의 자취는 많이 남아있고, 그것은 신체적은 물론 정신적(윤리도덕, 종교, 사회등 모든 분야에서)으로 복합적이고도 균등하게 그리고 지극히 당연한것처럼 베풀어져왔다.

우선 본능적인 삶이랄 수 있는 식생활에서 부터, 정작 식탁을 꾸미는 장본인이면서도 밥상위에 밥그릇을 올려서는 안되고 젓가락을 써서도 안되었다. 먹는 것도 따듯한 밥을 식객에게 줄지언정 먹다남은 밥, 찬밥, 누른밥이나 차지해야 했으며 아무리 속이 상해도 술잔잔하고 시냇말로 스트레스 해소 한번 할 수도 없었다.

신체적 속박으로는 평생 외출한번 자유롭게 못하고 어쩌다 문밖 출입이라도 할라치면 장옷으로 온몸을 감추고 눈만 내놓아야 했고 성숙하여 당연히 앞가슴이라도 풍만해질라치면 그것이 흉이 되어 옥죄어매야 했으며 그렇게 생리적 현상마저도 속박당한 비련의 시대를 살았다.

「男女七歲不同席」이란 규범은 어린애까지 사내 걸논질 한번 못하게 했고 대가집

노마님조차도 외간 남정내와 대좌할때는 그 사이에 발을 드리우고야 가능했음을 상기할 때 어떻게 그런 사회에서 그럴듯한 「男女相悅之詞」가 심심치 않게 있었음은 신비롭기까지하다.

기껏 날뛰기, 강강수월래, 뚝다리밟기등 먼발치에서나마 밖의 세상 남정네의 체취를 느낄 수 있었으니 그 시대에 있어서 여성에게 베푸는 慈悲이며 아량이었을까?

도덕과 윤리, 그리고 사회적으로 겪어야했던 학대와 수모는 오늘날 상식으로 형용하기 힘든 것이었다.

우선 「七去之惡」이란 거룩한 美風養俗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여자는 제도(남자)의 선택에 의해 屈從할 수 밖에 없는 무기력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물론 아주 천한계층에 있어서는 예외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한집안의 가솔로써, 아니 어엿한 안주인으로 당당해야 할 여자가 변명의 여지도 없이 위자료 한푼없이 자동으로 축출되는 이혼(합의나 법정이혼과는 전혀다른 일방적이긴 하지만)판례본이었다.

제부모형제에게는 아무래도 좋지만 시부모나 서방에게 밋보이면 안되고(不順舅姑), 자식을 생산해내지 못하면 안되고(無子), 음심을 갖거나 행해서는 안되고(淫行), 서방이 아무리 난봉질해도 투기해서는 안되고(嫉妬), 몸쓸 병에 걸려서도 안되고(惡疾), 말이 많은게 여자라는데 남의 입에 오르내려도 안되고(口舌), 남의 것을 탐하고 취하여도 안되는(盜竊), 금기들 뿐이었다. 물론 당연히 금해야 할 것도 있었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할 수 있는 실수도 더구나 자기의사와는 관계없이 숙명적인 어쩔수 없는 것들조차도 대리가 되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안되는 것 일색이던 세상에서 그 울밖을 넘본 여자는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

아무튼 어떤 경우에도 여자는 남자와 그리고 희망도 미래도 아무것도 선택할수 없는 오로지 타의에 의한 삶을 사는 존재일 뿐이었다.

축첩하는 남편을 나무라고 시앗을 미워하면 투기가 되지만, 제서방에게 시앗을 골라 들어 앉혀주면 그게 良妻이며 점잖은 집안 귀부인으로 칭송받았으니 쓸개도 없는 것이 그때의 여자였나 보다.

이 지경이니 신랑 얼굴도 모른채 팔려 오듯 시집 와(지금도 더러는 팔리듯 시집 간다고들 하지만)신랑이 바람기라도 드는 날엔 허구헌날 독수공방에도 하소연 한 번 못하고 그저 어찌다 「가물에 콩나듯」 찾아주면 감지덕지 그냥 좋아해야 했다. 이팔청춘에 시집 와 불타는 정염은 그저 저혼자 애태우며 저항조차 할 수 없는 불

---

평등 계약인 셈이다. 게다가 생산력이 없는 石女(그도 남자의 과실조차 뒤집어 쓰면서)라면 그야말로 살아 있는 化石에 지나지 않았다.

더우기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신랑에 시집와 부부다운 정한번 나누지 못하고 신랑이 橫死라도하여 靑孀이라도 되었다면 그 가련한 처지를 위로 받기 앞서 우선 살인자란 누명을 씌워 죄업에 따른 자학의 苦行을 겪어야 했으니 이미 산목숨이 아니었다.

정절을 지키니 수절을 하니 하여 불같이 타오르는 정염에 잠 못이루는 밤마다 하늘 끝으로 허벅지 피멍이 들도록 찢러가며 흠이 될때까지 남정네 그림자 한번 구경못하고 피눈물로 한맺힌 생을 살아야 했다.

그리고 의지력이라도 약한 여자는 종놈에게 눈웃음 한번 쳤다고 해서 더러는 이웃 머저머리 총각과 정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렇고 그런 사랑이 죄가되어 自盡이란 거룩한 이름으로 미화되어 목매어 죽고 물에 빠져죽고 약먹고 죽고 맞아 죽고 그렇게해서 사라져가기를 강요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위대한 그리고 숭고한 죽음으로 미화되었다.

더러는 더는 한맺힌 삶이 싫어서 자살이란 유일한 탈출을 선택한 열부 열너도 많았지만

어쨌거나 이땅에 그토록 많은 열너문이며, 열부비, 열너소등 가문마다 자랑스러워하는 위대한 역사 뒤에 가려져 있는 「여성잔혹사」를 이제라도 다시 한번 음미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至高至純한 靑史에 빛나는 많은 열너 열부를 욕되게 하고 함이 아남을 강조해 둔다.)

그래도 역시 자비로웠던 이땅의 法道(남자)는 범부에게 대하여는 「보쌈」이란 관습을 두어 홀로 된 과수를 훔아비가 야밤에 큰보에 싸가지고 도적질해 갈 수 있도록 했지만, 이런 선택적 구제의 손길조차 거부하고 몸을 더럽힐수 없으며 자결의 수단을 택한 경우가 더 많았다. 비록 한번은 실패했어도 새로운 삶마저 포기하기를 강요했던 것 중의 하나가 「娑女案」이라하여 문중에서 품행이 부정하거나 세번이상 개가하는 여자가 생기면 이에 기록하여 둠으로 가문의 불명예임은 물론 그후손의 과거급제등 장래에도 영향을 끼쳤으니 어찌 목숨보다 가문을 중시한 유교사회에서 改嫁가 그리 쉽게 용인 될 수 있었겠는가. 한편으로는 이에 반해 남자가 妾(소실)을 많이 들이고 그에게서 자식이라도 많이 생산하면 명문대가의 체통에 흠족하고 유복한 집안이라 부러워했으니 이 또한 불평등의 극치였다.

우리네 여성들의 놀이개(獎身具)중에 대표적인 「銀粧刀」라는 참으로 앙증맞고 귀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땅에 혼인한 여자들이 허리춤에 찻던 순결과 지조의

상징이었다. 지나치게 표현하여 정조라는 거룩한 명제 앞에 언제든지 죽음을 택하도록 죽어야 할 의무마저 지운 명에 지나지 않았다. 옛날 서양에 있었다는 「眞操帶」는 출정한 한남자를 위하여 자기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보호막이었다면 이는 도덕이란 이름으로 위장한 스스로의 생명을 끊기위한 살인도구에 불과했다.

남자에게는 본명, 아호, 자호, 죽어서 시호등 많은 이름을 주었으면서도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름마저 소유 할 수 없게 했다. 고작 이씨 김씨이며 아니면 천한 것들에게 지칭하기 편하기 위하여 천박한 별칭을 붙여주었을이다. 그리고 춘향전에도 「기생점고」라는 것이 나오지만 오죽하면 관기라는 이름의 관용 노리개는 사람이면서도 인명부에 오르지 못하고 물품으로 분류되어 관리의 이동이 있을때 마다 숫자로 인수인계하였고 늙어서 쓸모가 없어지면 폐기처분하듯 밖으로 내치면 그만이었으니 그저물건이었을 뿐이었다.

「三從之道」라는것 그것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인류역사상 그리고 세계여성사에 다시 없는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벽하게 보장되는 사회보장제가 아니겠는가.

어려서는 아버지의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키움을 받으며 자라고 나이가 차 출가하면 지아비의 포근한 사랑속에 감미롭게 보내고 늙어서는 자식의 지극한 효성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니 이처럼 유복한 여자, 축복받은 여자는 단언코 없었을 게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땅의 여자에게 한번도 뒤집어서 적용되어 보지 못하고 오로지 여자를 울아매는 장치에 불과했다.

어려서는 애비로 부터 복종의 미덕을 배우며 온갖 허드렛일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예미와 같은 노동을 전수받았을뿐 인간답게 살기위한 학문따위의 접근은 아예 허용조차되지 않은 그저 노예로의 수련 코스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순한양으로 길들여진 여자는 생면부지의 남자에게 그저 기대속에 시집오면서부터 이질적인 가풍이 순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충실한 가정부의 역할을 하면된다. 낮에는 일잘하는 일꾼이면 족했고 밤에는 그저 종족번식을 위한 역할만 하면 되었고 「눈멀고 귀먹고 입다물고 3년씩」그리고 보다 더 긴 세월을 고통로써 주장도 권리도 내세우지 못하고 사는 세상이었다. 그래도 「베계밀 숭사」의 구데타는 더러웠었지만 대개는 그랬고 그것이 현모양처의 표상이기도 했다.

그래도 마지막 3종 즉 자식을 따르는 세월은 좋았다. 충·효를 근본으로 배운 전통사회에서 자란 자식의 지극한 효성이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다복한 시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 권력과 권한이 있을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불행이도 그것은 다시금 그의 머느리를 길들이며 그 한과 원을 다시 전수

하는 과정이 되고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는 숨을 거두면 묘비명에 「○○某氏 之墓」혹은 「○○의 配」라 묘비명에 쓰이면 그뿐 제집 족보에는 못올라도 한평생 바쳐 봉사한 댓가고 시집족보에는 올랐으며 역시 이름은 없었으니 이름없이 살다간 사람은 아마도 이땅의 여자들뿐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제 그 처절하고 잔혹하기까지했던 여자이야기 여자학대사는 기회있을때에 마주하기로하고 여기서는 그만 논하고자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땅의 여자들이 이처럼 怨과 恨으로 뚫뚫 뭉쳐진 세계에서 어떻게 삶을 자포하지 않고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며 이나라의 남여 성비를 맞추며 반만년을 끈질기게 버티어 왔을까?

참으로 참초보다 더 강인한 생명력이다. 특히 남자보다 더 감수성이 예민하고 심성이 착하고 의지력이 약할수 밖에 없는 여자가 말이다.

무엇이 이처럼 怨을 삼키고 恨을 곱씹으면서도 곳곳이 이땅에 설수 있게 했던 것일까

좀 비약적인지 모르지만 이땅의 여자들이 전용했던 생활도구인 「맷돌」「다듬이」「빨래방망이」「절구공이」 그런것들이 한 동인이 되지 않았을까

맷돌을 돌리며 그 힘든 노동에도 가락을 읊조릴수 있었던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다듬질은 어떻게 무아의 경지에서 이처럼 신명이 날수 있었으며 무엇이던 가루를 내던 절구질의 뜻심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시어미의 미운은 밤새 다듬질로 풀고 시누이 울케 이유없는 까탈은 찬물에 언손 불며 빨래방망이로 터트리고 시동생 시아주버니 홀대함이야 절구질로 가루내고 서방놈 주색은 맷돌로 갈고 시앗의 시새움은 디딜방아로 요절내고, 온갖 못된 사회제도며 규범의 속박은 밀짱아 가루내어 새롭게 반죽하여 흥두께로 밀어내어 그 잘디잔 국수발로 마음대로 고쳐보는 환상의 시간들이었다. 억지인지 몰라도 이런 유형의 폭력적 노동이 시쳇말로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이었을 게다. 그러기에 어느것 하나 비지땀이 나도 노래가 없는것이 없고 흥겹지 않은 것이 없으니 말이다.

참으로 이나라의 여자들은 천사이며 선녀의 화신들이었다. 이처럼 모진학대에 대한 험거운 저항이 이처럼 성스러운 노동(그것도 그 가해자들의 생활을 위한)으로 승화 되었으니 차마 기록하기 조차하다. 아니 어쩌면 자기 스스로의 학대를 통하여 인고의 미덕을 체질화되도록 순응하고 길들여진 비운의 주인공들이었는지도 모른다.

---

앞서도 말했지만 이 모든 사건들의 시대적 배경은 그 정도의 경중은 있을지 모르지만 불과 반세기 이전까지도 멋 멋하게 자타가 공인하는 「동방예의지국」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었다.

여자로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그 동인에 대한 이야기등 아직도 하고 싶은 여자가 이야기 많지만 과거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한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지금 이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최근 무너진 70년밖에 안된 소련공산당의 몰락과는 비교도 안되는 혁명이며 대변혁이다.

반만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구습이 아닌 사회상이 도덕관이 단 반세기만에 바뀌어 남여평등이 아니라 남자위에 군림하는 여자로 그 가치관이 전도되고 있다.

요즘 영화도 TV도 소설도 어느여자가 남자에게 것처럼 굴종하고 도덕의 못과 윤리의 너울에 속박당하고 있는가? 지금 남자는 그저 여자가 삶을 영위해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존재가 될뿐이다.

가정에서 여자가 가사권의 절대적 위치에 오르는 중대사의 결정에 여자의 영향력은 전권적이다. 최근 통계를 보니 이혼의 60~70%가 여자에 의해 청구되고 있다고 하니 이미 쫓겨나는 것은 여자에서 남자로 역전된지 오래다. 유난히도 반바지가 유행했던 울해지만 어느 여자가 더 많이 내놓고 다니느냐, 경쟁을 할 지경이니 신체적 속박의 시대도 이미 끝났다. 낳고 싶으면 시험관아기를 낳수도 있고 병원에서 어느쪽이 고장인지 명확히 판단해주시 돌자(石女)에 대한 책임도 없다.

요즘 세상은 남자가 할수 없는 일은 있어도 여자가 할수 없는 일이 없다. 그만큼 여자가 할 일도 많고 사회진출의 폭도 넓어졌다. 여자의 영역이 넓어진 만큼 남자의 활동 폭은 넓이를 가정내로 확장(?)해 가고 있다.

또 여자가 술을 마셔도 담배를 피워도 그리 크게 탓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이제는 쌓일 스트레스도 자학할 이유도 더군다나 자포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다듬질 소리도 빨래 방망이 소리도 멧돌 돌아가는 소리도 절구도 디딜방아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비록 대부분 기계가 대신 해주고 있지만 여자가 전담해 오던 가사 노동중 갈고 두드리고 뺨고, 닦고, 그런 파괴나 힘(폭력)이 수반되던 일들이 점차 남자의 몫으로 이양되어 가고 있다. 머지 않아 그런 것들이 남자의 전담이되는 날이 오리라고 단정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아무튼 이땅의 여성들은 반만년 억눌린 숨막히는 암울의 늪에서 빠져나와 자유와 희망과 평화와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는데 성공했다.

이것은 어쩌면 여성 해방이 아니라 반란이며 혁명이요 구데타였다.

---

그러나 그런 변화가 궁극적이고 바람직한 것일까? 과연 남녀평등을 넘어서 여성 상위의 시대가 이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삶이며 평등의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저 반만년을 일방적으로 당하며 원과 한의 생을 살아온 이땅의 여성들이 한시 대쯤 태평성대를 구가해서 뭐 나쁠게 있겠냐고, 그정도는 너그럽게 보아 줄수는 있지 않겠냐고 말한다면 할말이 없는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땅에서 일고 있는 여자의 바람이 공존이 아닌 불평등 계약으로 변질된다면, 그것은 마치 거대한 소비에트연방의 그리고 철의 장막이라던 동구가 하루 아침에 무너져버리듯 그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 허황된 꿈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어쨌거나 것처럼 모진 굴종과 잔혹한 시대를 인동굴처럼 감내하고 그 원과 한의 시대에 조종을 울리게한 그리하여 여자가 인간처럼 살수 있도록 혁명에 성공한 그리하여 자유를 쟁취한 오늘 이땅의 여자들에게 뜨거운 갈채를 보내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1991. 9.25)



## 靑少年 犯罪問題

— 잃어버린 良心을 되찾자 —



書院面 鴨谷里 169 崔 聖 琛

우리 인간들이 物質을 숭상하다보니 급기야 物質(黃金)萬能主義에 一方으로 빠져 아름답고 바른 人間本來의 정신은 한갓 물질의 奴隸로 轉落되어 사회 곳곳에서 非理와 悖倫行爲가 紙上에 大書特筆되고 있다. 마치 古代 中國의 春秋戰國時代(춘추시대 367年, 전국시대 147年)를 방불케 한다고나 할까? 그 時代를 一瞥해 보자. 春秋時代에는 「五霸」가 나왔고, 戰國時代에는 「七雄」이 割據하여 所謂 群雄割據, 諸子百家 思想의 亂舞로 인하여 社會는 極度로 分열과 혼란, 그야말로 亂麻와 같이 어수선했다. 실로 먹고 먹히는 物慾의 世態였다. 이 亂世를 匡救하려고 孔子는 분연히 일어섰다. 敎化와 德治를 부르짖고, 말하자면 遊說政客의 한 사람으로 各國을 순회하며 人間性的 회복과 孝悌忠臣의 普遍眞理를 부르짖고 道德性的 政治, “즉 政은 正이다”라고 德治主義를 修己治人의 標本으로 삼았다. 참으로 위대한 社會의 變革이었다. 그러나 모든것이 失敗로 돌아가자 고향 魯나라로 돌아와 弟子敎育에 一生을 바쳤다. 그는 “不義에 富하고 貴한 것은 나에게서 뜯겨나가고 갈도다.” 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現實은 어떤가? 땅의 投機 人身賣買, 豪華婚需, 靑少年犯罪, 過消費風潮 그리하여 所謂, 벼락부자, 벼락감투를 일삼고 있다. 돈이면 萬事亨通이다. 富貴在天이 아니라, 富貴在錢이라고 생각한다.(參考로 西普元康年代의 (291-299) 魯褒의 “錢神論”을 보면 “돈은 날개없이 날고, 말없이 달리고, 무뚝뚝한 얼굴을 웃기고… 서울의 벼슬들도 事務에 जु다가도 돈 형님만 만나면 눈이 번쩍뜨이고… 어찌 글을 읽어서 富貴하기를 꾀하라……. … 옛 聖人은 生死는 運命이요, 富貴는 天命이라 하였지만은, 나는 生死에 運命없고, 富貴는 돈에 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돈은 禍를 福으로 바꾸고 있고 失敗를 成功으로 바꾸고 있다는 內容의 黃金萬能主義를 그린 論文이다.)

이 그릇된 思考와 社會環境에 便乘하여 非行靑少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

---

들은 家庭, 학교, 사회를 詛呪하며 入試競爭에서 脱落 非進學의 苦杯, 未就業에서 오는 失意, 所屬感, 認定感의 缺乏 그리하여 否定的 自我意識의 卑下, 社會에 對한 劣等感을 갖게되며, 血氣왕성한 20代의 발랄한 氣象을 저돌적으로 무모하게 非行으로 발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善導하는 길은 무엇인가?

우선 道德教育, 즉, 漢文講義등을 통한 傳通倫理教育의 恢復이다. 孟子는 “仁”이란 本來의 人間의 마음이고(性善說) “義”는 사람의 바른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른길을 버리고 使用하지 않으며, (舍其路而弗由) 그 마음을 잃고도 구할줄을 알지 못한다고 애석해 했다. 또 “人間들은 닭이나 개가 없어졌어도 그것을 찾을줄 알면서도 마음(良心, 本心)을 잃고도 찾을 줄을 알지 못하고 있다. (原文: 人有雞犬放 則知求之. 有放心而不知求, 哀哉……)

이것이 문제다.

靑少年의 非行 이것을 治癒하는 길은 卽 放心의 恢復 잃어버린 良心(本心)을 찾는 길이다. 不義와 不正直을 미워하는 存心의 教育부터 實踐해야 하겠다.

그리고 教師, 社會의 指導者의 率先垂範이 앞서야 하겠다. 口로 가르치는 教育이 아니라 行으로 보여주어야 하겠다. 知行合一의 教育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行動哲學이다. (善則從之, 惡則皆之, 善惡皆吾師也) — 經師는 많아도 人師는 드물다. 즉 經書(學問)를 傳達하는 스승은 있으나 品行이 模範의이고 스스로 남을 德行으로 教化할만한 스승은 드물다는 말이다. 善政보다는 善敎가 앞서가는 社會가 이룩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教育은 百年之大計라 하지 않았던가?

靑少年犯罪의 原因을 우리 旣成世代가 責任지고 家庭, 學校, 社會의 三位一體가 되어 그 根源의인 教育 — 良心의 恢復에서부터 漸次 治癒되어야 하겠다.

---

崔聖琛 : 1924. 8. 21生

주소 / 서원면 압곡리 169

전 / 서원국민학교장

현 / 바르게살기운동 서원면 위원장

## 老 詩 人



곽 영 기

세월의  
얼룩이가  
이마에 번졌구려

생각의  
바람소리  
목소리에 잠겼구려

버터 선  
뒤꿈치 아래  
산정수정(山情水情) 포갠구려.

- 
- 곽영기/ ○출 생 지 : 황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189번지  
○생년월일 : 1939. 10. 20  
○경 력 : 시조문학 천료  
제1시조집 개나리  
제2시조집 대관령  
제3시조집 세월을 삭힌 노래  
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  
강원시조문학회원  
북원문학회원  
돌기와문학회원  
해안문학회원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근무(서기관)

## 사장님

곽영기

눈빛  
갈피갈피  
따갑고 따스하오

다문 입  
삼킨 미소  
도로한 강이구려

위 아래  
두루 살피는  
산전수전(山戰水戰) 겪었구려



## 섬 강

곽 영 기

용암이 식어가며  
아침 열던 개벽에  
우주 그 정복판에  
섬강 모습 드러났고  
새월은  
이 강물에다  
이끼풀씨 띄웠네.

안개, 구름 일고 홀고  
생명이 어우러질 때  
꽃마음 꽃사랑이  
물에 실려 맺어왔고  
작고 큰  
일거리들이  
풀꽃처럼 피고 졌네.

황성땅 흐르다가  
하늘 길로 돌아온 강  
구비구비 발자국들  
할아버님 남기셨고  
은밀한  
뜬소문들도

---

달빛 물에 얼렸었네.

잠시후 우리 가면  
손자놈들 강이 되어  
짙막한 그림자들이  
모래밭에 뛰놀겠지  
마음 문  
지그시 열고  
천년 강을 바라본다.



## DESSIN



金 亮 洙

진중일 나리는 비.  
발가벗은 사내.  
따신 情 그리운  
木炭의 行列

배신자가 된 너와  
不具가 된 내가  
길바닥에 쓰러져있다.

조심스럽게  
결별을 만지는 손끝에  
탄생하는 또 하나의 얼굴.

아  
머리 빗고 앉은  
사랑인가!



## 낙엽의 일생



강 정 식

새잎이 돌아서  
그 할일을 다하면  
낙엽이 되는데  
그동안은  
고난의 순간이 뒤따랐다.

나무에서  
잎이 틀때까지  
자라면서 겪는  
온갖 어려움  
더러는 바람에 떨어지고  
눈속에 묻히다가  
얼마쯤 시간이 가면  
더 푸른 숲을 위해  
제 몸을 썩히는 슬기.

- 姜貞植/ ○ 출생지 : 황성군 공근면 상동리 어영골 271  
○ 90년 월간 "한국시" 및 농민문학 신인상 당선으로 문단에 데뷔.  
○ 79년 전국 금융인 문학상 "시"부분 특상 수상  
○ 홍천문인협회 시분과 위원장 및 "해가락" 시낭송회 회원  
○ 현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 근무  
○ 주소 : 홍천군 홍천읍 회망5리 126-4 전화 : 434-2378

## 아들의 용돈

강 정 식

용돈을 달래서  
얼마나 주라 했더니  
아들을 위하는 마음 만큼  
보내랴.

가계당좌예금 대월을 해서  
용돈을 보낸지 며칠 안됐는데  
또 심야 전화다 이번엔  
얼마나 주라 했더니  
아들의 품위유지를 위해서  
알아서 보내랴.

제 누나와  
서울에서 자취하는  
시골 유학생  
공부를 너무해서 몸이 여윌으니  
이번엔 건강유지비를 보내랴.

고정된 월급쟁이  
허리가 휘도록  
아들의 용돈을 보내고나니  
나에게 남는건 빈 주머니뿐  
그래도 내 처지가 좋다는 사람 있으니  
세상살이 이상야릇할 뿐이다.

## 프리즘



김성기

맑게 닦은  
세상  
하얗게 열어보면,

곱게 풀리며  
깃털처럼 포옥 씨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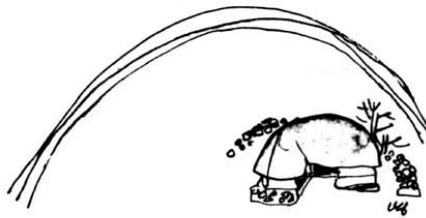
누군가  
저머 핀 색깔  
소복 소복 놓은  
정검다리 건너가면  
아 아  
색동으로 빗어 놓은  
무지개 마을

겨울나무 가지마다  
무지개가 없혀  
색깔의 갈피에선  
오색 구름이 오르고

---

오색 벽돌로 지은  
집집마다  
색동 대문을 열고 나와  
허리만큼 잠기는 무지개  
밭길로 헤치며  
아지랑이로 흔드는  
마을길 아이들.

가을보다 진하게 타는  
산등성이엔  
청실 홍실  
연실을 풀어  
무지개를 띄운다.



## 겨울눈

김성기

창밖에 낙엽을 쓸어 모으던 날이었습니다. 발자국이 뿌얇게 찍혀나도록 잘 쓸어 놓으면, 어느 새 떨어진 낙엽들이 덩굴고 나뭇가지 높은 곳에 바람이 걸릴 때마다 기다린 듯 우수수 내리 쏟아지는 낙엽들이 하늘을 채우며 팔랑팔랑 떨어져 내려오는 게, 가을 하늘 한 자락이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아 우리는 하늘을 짱총 짱총 뛰었습니다. 그것들을 가슴에 꼭 담아 두고 싶어지고, 이윽고 와락 끌어 안고 싶은 벅찬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쌓인 낙엽더미에 다구 뒹굴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한 아름씩 낙엽을 안아다가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너무 진한 냄새 속에 무슨 소리가 섞인 것 같아 일어서다가 빈 가지에 자란 키의 눈금마다 겨울눈이 버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가을을 훌훌 털면서 다가오는 봄을 위해 푹푹 겨울맞이의 소리가 거기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거기다 웃음 소리를 섞으며 낙엽을 쓸었습니다. 자꾸만 커지는 낙엽더미는 우리들의 모습을 숨기고, 나뭇가지에서 푹푹이는 소리는 우리들의 웃음 소리보다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 金聲起/ ○ 1946년 8월 6일 횡성 가담리에서 남  
 ○ 1967년 춘천교육대학 졸업  
 ○ 1978년 강원일보 신춘문에 동시 당선  
 아동 문예, 아동문학평론지에 동시 추천 완료  
 ○ 북원문학, 강원아동문학 회원  
 ○ 근무처 : 갑천면 명신분교 근무

## 歎水沒地(甲川貯水池)



金基元

門前沃土沆中沈  
失地農民感慨深  
役犂清聲潛水裏  
浮帆白浪映山陰  
得光觀客娛風景  
忘里鄉人落淚襟  
忽忽離村何處去  
隨雲適道更歎心

水沒地를 恨歎함

門前の 沃土가 큰물속에 잠기니  
땅을 잃은 農民의 슬픈 마음은 깊겠네.  
황소를 부리던 맑은 쇠소리는 물속에 잠겼는데  
돛배가 뜬 흰물결 위에는 山그늘만 비치누나.  
光景을 보게된 觀客들은 風景을 즐기워 하거늘  
마을을 잊어버린 鄉人들은 옷깃에 눈물을 흘리누나.  
忽忽히 마을을 떠나가면 어느곳으로 가리  
구름따라 가는길에 다시 恨歎 하누나.

# 秋聲



金台鎭

西來日日作風飛  
聲似晨潮入則非  
不海狂濤隨處打  
無雲驟兩接天歸  
長空浙瀝寒初至  
大陸蕭條署自徵  
始讀燈前歐宋賦  
奔騰偉勢四邊圍

西쪽에서 오기만하면 날마다 바람을 일으키니  
소리는 새벽의 潮水와 같은데 들어가면 아니더라.  
바다도 아닌데 미친 파도는 곳을 따라 두드리고,  
구름도 없는데 소낙비라도 같이 하늘에 닿아 돌아가누나.  
長空에 부는 비바람소리에 寒氣는 비로소 오고  
大陸이 蕭條하니 더위는 저절로 적어지누나.  
비로소 燈前에서 歐宋賦를 읽으니  
奔騰하는 가을의 偉勢는 四邊을 에워싸누나.

※ 「歐宋賦」는 北宋의 政治家이며 唐宋八大家의 一人인 歐陽修다. 戰國時代 楚의 詩人인 宋玉의 글을 말함.

## 願南北平和統一



宋寅錫

統一惟祈歷累年  
更催三八撤收全  
黎民喜兩濡南地  
赤傀愁雲蔽北天  
鄉失嘆爺逢子願  
臺登怨婦望夫憐  
運回權域如花發  
共得平和永遠傳

南北平和統一을 願한다

統一 되기를 오직 여러해 동안에 빌어 왔는데  
다시三八線을 건너지우기를 재촉 하누나.  
黎民이 기뻐하는 비는 南쪽의 땅을 적시는데  
赤傀의 시름진 구름은 北쪽의 하늘을 덮었구려.  
故鄉을 잃고 嘆息하는 아버지는 子息 만나기를 願하는데  
臺에 올라 怨恨겨운 아내는 男便 바라는 마음 안타깝도다.  
運數가 돌아오는 權域은 꽃이 되는것만 같아서  
함께 平和를 얻어 永遠히 傳하리로다.

## 최양옥의 구국운동



유현국민학교 교사 박 순 업

### 1. 머릿말

최양옥은 황성 3·1운동 당시 많은 활동을 했으면서도 황성군민들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91년 9월 16일 황성군 의회는 그의 장한 뜻을 후세에 기리고자 송덕비 건립을 승인 통과시켰다고 한다.

필자는 '82년 갑천면 전촌리에서 노후를 보내던 그를 몇번 방문, 독립운동 회고담을 녹음한 일이 있었는데 송덕비를 세우는 것을 계기로 그의 독립운동 일화를 간단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 2. 항일운동

#### (1) 황성 3·1운동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으나 최양옥은 청운의 뜻을 품고 신학문을 배우러 서울로 유학, 중등 중학에 입학 학문에 정진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나라를 잃은 슬픔과 나라를 찾겠다는 의지는 파고다 공원에 서의 3·1운동으로 점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남달리 정의감과 애국심이 강했던 최양옥도 책가방을 팽개치고 파고다 공원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목청높여 외쳤다.

그후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와 만세운동을 계속하기로 결심하였다.

최양옥은 갑천면 화전리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냈고 3·1운동 당시는 잠시 둔둔리로 이사를 하여 살고 있었으나 둔둔리는 황성이 생활권이었다. 최양옥은 둔둔리 군중을 모아 황성 청년들과 함께 기미년 3월 27일, 4월 1일 장날 황성 3·1

운동에 앞장서 활동하였다.

3월 27일 운동을 토대로 4월 1일 운동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으며 수천명 군중들은 저마다 목청높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만세 운동은 아침부터 저녁때 까지 이어졌으나 땅거미가 깔릴 무렵 일본 헌병들은 군중들을 향해 총을 쏘아댔다. 여기저기 피를 흘리고 애국지사들이 쓰러졌으며 군중들이 우왕좌왕 흩어질 즈음 그들은 시위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였다. 최양옥은 다행히 총을 맞지는 않았지만 군청옆 느티나무 밑에 죽은척 쓰러져 있다가 완전히 어두워졌을때 빠져나왔다.

최양옥은 처남인 안경춘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알리고 잠시 몸을 숨길겸 처가인 안흥면 상안리로 갔다. 그러나 잠복한 두명의 일본 헌병에 의해 체포되어 횡성으로 압송되는 몸이 되었다. 우천면 추동리 삼거리까지 와서 그들에 이끌려 주막에 앉아 잠시 쉬게 되었을 때다. 그들이 막걸리를 들이키며 잠담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 재빨리 용돈리 방면으로 내달렸다. 칼을 휘두르며 소리치고 쫓아왔으나 날쌔 최양옥을 붙들지는 못했다. 산등성에 올라와 보니 등에는 일본 헌병의 칼집을 지고 있었고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졌었다. 간신히 수갑을 풀고 등에 짊어진 물건을 내팽개치고 계속 뛰어 용돈리 친구네 집으로 갔다. 가서 전후 사정 이야기를 하며 친구 아버지에게 몸을 숨겨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친구 아버지는 "옛날 같으면 역적일세. 역적을 숨겨주면 삼족이 멸하네." 하며 거절하였다.

## (2) 국내외에서의 항일운동

그는 섭섭한 마음을 가누며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기가 어려움을 알고 만주로 망명할 것을 결심 실행에 옮겼다. 만주로 간 그는 독립운동 단체인 대동단(단장 김가진)에 입단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였다. 최양옥(한국독립사 802쪽 참조)은 권총을 휴대하고 김정연과 함께 국내에 잠입 전라도 담양에서 군자금을 모금하다 왜적에게 체포되어 1921년 5월 7일 광주 지방법원에서 7년형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겪었다. 그는 형무소에서 나와 감천면 전촌리에 살고있는 그리운 가족을 만나러 갔다. 아버지는 한달전에 운명하였다하며 집안사정은 엉망이었다. 그는 어머니께 못한 효도와 처자를 보살피며 열심히 가사를 돌보았다. 일본 헌병들은 그를 감시하며 갖은 감언이설로 회유하였다. 그러나 한달이 지날 무렵 만주의 동지로부터 연락이 왔다. 지금 동지가 할일이 태산같으니 빨리오라는 전갈이었다. 눈치를 챈 어머니는 독립운동 할만큼 했으니 이제 집안일 좀 돌보라고 애원했

으며 아내도 눈물로 호소하였다. 그러나 그는 번민과 갈등끝에 피눈물을 머금고 다시 독립운동의 길을 택하였다.

중국에 들어가 항일운동을 계속하던 최양옥은 1928년 4월 중국 산서성에서 김정연, 이선구, 안창남등 여러 동지들과 군자금 모금을 주목적으로 공명단(한국독립사 239쪽 참조)을 조직하고 단장에 추대되었으며 부단장으로는 평양승실증 학창시절부터 항일선두에 섰던 김정연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함께 목숨을 바쳐 싸울 것을 결심하였다. 중국 산서성 대원부에 근거를 두고 활약하던 공명단원은 서울에서 만국 박람회 개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폭파하려 국내에 잠입하였다. 그러나 경계태세가 삼엄하여 다른 일본 시설물을 파괴하며 왜적을 괴롭혔다. 그러던중 16만원이 들어있는 왜적의 중요 우편물차가 춘천으로 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929년 4월 20일 경춘간 망우리 고개에서 부단장 김정연, 평안북도 지사의 자동차 운전수이며 공명단 국경 특파원인 이선구와 함께 권총 3정으로 무장 망우리 고개를 통과하는 외적의 우편물 차를 습격 비밀 장치한 우편물을 찾아내어 왜적의 우편물은 전부 소각하고 한인의 우편물만 남겨둔채 3인은 종적을 감추었다. 그후 이를 알게된 왜적은 경기, 황해, 강원, 충북, 충남 5도의 왜경을 총동원하여 천마산(양주)를 포위하였다. 이리하여 공명단원 3인과 왜적 군경의 전투는 천마산 전장을 시작하여 망우리 고개와 마치고개를 넘나들면서 이틀 밤, 낮을 싸웠다. 그러나 공명단원은 고전끝에 탄환이 떨어지고 허기가 심하여 할 수 없이 잡혔다. 최양옥은 11년, 김정연은 9년, 이선구는 6년 형을 받아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루었는데 이선구 단원은 일제가 주는 식사를 거부 옥사하였다고 그는 당시를 회상하였다.

### 3. 맺는 말

최양옥의 횡성에서의 만세운동은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다. 그것은 만세운동 후 곧 탈출하였기 때문에 체포되어 재판권을 받은 기록도 없으며 그후에 증언해 줄 사람도 모두 세상을 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에서 나오는 열변과 눈빛은 사실을 증명해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는 전촌리에서 부모님 산소를 돌보며 노후를 보내면서 가끔, 만세를 불렀던 군청부근 느티나무 옆에 찾아가 고개를 숙이고 그날 순국한 동지들을 생각하며 넋을 빌어주곤 하였다고 한다. 그는 국내외

---

서 평생을 독립운동에 몸바쳤으며 그 결과 18년간의 옥고를 겪기도 하였다. 독립 유공자 보상 문제에 집착해 있는 후손들을 보며 그는 “보상 받으려고 독립운동 했습니까?” 반문하며 당시는 오직 왜적과 싸우는 일에만 신들려 있었다고 했다.

해방이 되자 그는 자기가 몸서리치게 옥고를 겪었던 서대문 형무소 서무과장을 역임하게 되었으며 그후 인천 소년원 원장으로 정년퇴임, 평생 형무소와 본의 아니게 인연을 맺은 셈이다. 그는 1984년 91세로 세상을 떴으며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모든것을 바쳐 일제에 맞서 싸운 자랑스런 독립운동가로 오늘날 재조명해 볼만한 황성의 훌륭한 애국지사임에 틀림이 없다.



## 杜甫의 詩 鑑賞



書院面 鴨谷里 169 崔 聖 琛

杜甫(712-770)는 中國盛唐의 詩人이다. 李白과는 對照的인 二大家로서 詩仙 李白에 對하여 詩聖이라 부른다. 그는 中國文學史上 第一의 詩人으로 불린다. 律詩를 完成하고 더욱이나 從來의 文學傳統의 集大成이라는 形式으로 抒情詩, 杼事詩를 創造했다. 그의 詩에는 生涯를 逆境으로 一貫된 悲嘆과 忿怒가 噴出된다.

수다한 苦難은 그를 폭넓은 휴머니스트가 되게하고 그는 그러한 自己를 誠實하게 作品에 表現했다. 杜甫의 詩 몇 首를 골라 그의 歷程을 더듬어 詩聖의 生涯와 思想의 一端을 밝혀보려고 한다.

讀書破萬卷 독서는 만권을 독파하고 下筆如有神 붓을 들면 귀신같이 쓴다.

天寶六年(747) 36歲時 再庚의 進士試驗에도 及第 못하고 깊은 挫折感에서 自己의 理解者 尚書左丞의 韋濟에 보낸 詩中의 一節이다. 젊은날의 杜甫의 苦惱는 萬卷의 冊을 讀破한 自信과 努力을 끊임없이 한 天成의 詩人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國破山河在 국토는 파괴되어 산하는 의연히 옛모습 그대로 남아있고

城春草木深 성안은 봄이와서 초목만이 청청히 무성하고 있다.

感時花濺淚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눈물을 흘렸으며

恨別鳥驚心 가족과의 이별을 슬퍼한 나머지 산새들의 우는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마음의 불안을 느꼈다.

悲愁와 激怒의 感情이 잘 나타나 있는 “春望”은 長安幽閉中에 지은 것이다.

戰亂流離의 悲哀를 巧妙하게 詠嘆한 것이다.

叢菊兩開他日淚 들에핀 국화꽃을 두번째 보니 去年秋 눈물이 되살아난다.

孤舟一繫故園心 故鄉갈 생각에 한척의 배를 이 江邊에 붙들어 매고 있다.

故鄉갈 作者의 哀切한 願이 스며있다.

思家步月清宵立 집을 생각하며 달빛을 밟으며 清宵 깨끗한 하늘을 바라  
보며 서성거리고  
憶弟看雲白日眠 동생을 생각하며 구름을 쳐다 보며 낮잠을 꾸벅꾸벅  
자기도 한다.

“恨別”의 一節이다. 安祿山의 亂이 일어나 數年後 上元元年(760) 49歳の 杜甫는 成都에 浣花草堂을 열다. 이제까지의 飢餓와 放浪生活에서 一應의 終止符를 찍고 는 하였으나 故鄉을 멀리한 生活이라 아우와의 離別의 情에는 끊임없는 愛情이 솟 구치다.

天下의 動亂을 겪고 겨우 小康狀態를 保全한 그 當時의 作者의 虛脫感을 白日眠 이란 表現으로 나타냈다.

老妻畫紙爲碁局 늙은처는 종이에 선을 긋고 바둑판을 만들고 있고  
稚子敲針作釣鉤 어린아해는 바늘을 갖고 낚시바늘을 만들고 있다.

759年 成都에 到着 成都西郊에 浣花草堂에 安住 藥草 및 野菜를 耕作 親舊 嚴武의 도움을 받아 안온과 平和를 가져온 幸福한 時期였다. 戰亂中 比較的 平穩했다. 이 時期에 詩는 圓熟 內容은, 平和 그대요였다. (49歲作)

無邊落木蕭蕭下 끝없이 펼쳐진 수림에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며  
不盡長江滾滾來 끊임없는 양자강에는 물이 넘쳐 흐르고 있다.

杜甫의 “登高”의 承句이다.

楊子江 附近의 적은 언덕에 올라 大歷二年(767) “登高”라 題하는 有名한 詩이다. 陰歷 九月 九日 作者 56歲作.

生이 있는 것의 凋落의 모습과 大自然에 있어서 永遠한 모습을 落木과 長江의 對比에 依해 壯大하게 表現하고 있다. 長江邊에서 寂寥한 晚秋의 風景中에서 杜甫는 홀로 身上의 自初之終의 悲哀를 그리고 人間의 짧은 生涯의 憂愁 그리고 이제 老殘多病의 몸이 된 絕望感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萬感이 交又追頭하였으리라. 긴 孤獨한 漂泊의 生活中에서 얻은 人間의 깊은 洞察을 갖고 自己의 運命을 豫感한듯 한잎의 落葉으로 象徵하고 있는 것이다. 三年後 그는 歸鄉의 꿈을 이루지 못한채 旅中에서 客死하고 말았다.

花徑不曾綠客掃 꽃이 핀 소로를 방문하는 손님도 없어서 여태까지 소제  
한적도 없으나

蓬門今始爲君開 粗末한 나의 家門을 지금 당신을 위하여 열어 놓는다.

成都郊외의 浣花草堂에서 崔某라는 友人來訪에 答하여 作詩한 것이다. 友情에 넘치는 作者의 心情을 엿볼 수 있다.

飄飄何所似 바람부는 대로 전전하며 표박하는 나그네 신세는 무엇에 비유  
한단 말인가?

天地一沙鷗 그것은 광대한 천지간에 훨훨 날아다니는 한마리의 갈매기 같은  
것이다.

杜甫는 이때 生涯 最後의 旅行에 나섰다.

家族과 함께 오랜 定住의 地 成都의 浣花草堂을 뒤로하고 (54歲作) 765年 5月이  
었다.

親友인 節度使 嚴武의 死亡後 楊子江을 따라 望鄉생각이 깊어가는 反面 戰亂의  
終結을 願하는 杜甫는 至今 雲南으로 向하는 舟中의 一夜를 廣大한 自然中에서 지  
내고 있다. 때는 벌써 가을이다. 별은 하늘에 가득하고 楊子江은 豐饒롭게 月光을  
피우면서 흐르고 있다.

이 悠久한 大自然中에서 片舟에 몸을 依托한 漂泊子一 도리켜 自己를 한마리의  
갈매기로 比喻할때 杜甫는 一種의 諦觀마저 가졌으리라.

莫事身外無窮事 쓸데없는 잡념에 사로 잡히지 말라

且盡生前有限杯 그래서 한잔 마시자 한명의 순간에서 잔을 들자.

杜甫 50歲의 봄이다. 四川省 成都郊외에 浣花草堂을 짓고 꼭 一年 經過될때, 여  
기에 오기까지는 安祿山의 亂(天寶 14年 755)以後 그는 筆古로는 나타내기 어려울  
程度의 畿多의 辛酸을 맛보았다. 限命에 닥치는 無限의 自然 渦中에 人間의 不幸  
과 混亂이 自然과 함께 繼續되는 것이 아닐까?

人間의 不幸을 體驗한 杜甫는 그 悲嘆을 술잔을 기울여 自慰하다.

人生有情淚沾臆 인정은 한 눈물이 가슴을 적시누나.

江水江花豈終極 흐르는 물과 피는꽃이 어찌 다함이 있을 것인가?

自然의 悠久함에 比하여 人間世上은 無常하다는 感懷는 杜甫아니더라도 가끔 到來하고 있으나 目前에 물과꽃을 보고 強한 印象을 준 表現이다. 그렇다. 人間에게는 感動하기 쉬운 情感이 있는법 故로 내 가슴은 눈물에 젖어있다고 一是平凡한 理由를 들어 效果的으로 表現하였다.

海內風塵諸弟隔 지금 천하에는 전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아우들과 헤어져 있다.

天涯涕淚一身遙 이 천애고독의 몸으로 눈물을 흘리고 혼자 멀리 떨어져 있다.

寶應元年 762年 51歲作 成都郊外 浣花草堂에서 吐蕃의 侵入에 依한 邊境의 不安은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國內는 安祿山의 大亂以後 內亂이 더욱 深化되고 飢饉과 貧困에 허덕이는 一家離散의 悲連속에서 悲嘆에 젖어 지은 것이다. 그는 雪山인 西嶺을 멀리 바라보면서 깊은 感慨에 깊었으리라.

親朋無一字 친척이나 友人에서는 한자의 서신도 없고

老病有孤舟 이 年老한 병든 몸에는 하나의 小舟가 있을 뿐이다.

大歷三年(768)의 正月 57歲의 杜甫는 一年餘를 보낸 夔州(기주)를 作別하고 배로 楊子江을 下流하고 三月에는 江陵으로 와서 數個月 滯在하다 곧 晚秋에 이어 滅暮岳陽에 到着하다. 大概가 船旅다. 기주를 떠나기 直後부터 健康이 좋지 않아 持病人 喘息에 허덕이고(肺結核) 左耳도 안 들린다. 戰火는 不絕 繼續되고, 親戚이나 朋友의 消息도 없고, 歸鄉의 豫定도 서지 않는 가운데 有名한 岳陽樓에 올라 洞庭湖의 壯大한 景觀을 보고 悲嘆에 젖어 詠詩한 것이다.

萬國尚戎馬 천하 도처에는 전란이 그치지 않고

故園今苦何 고향은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洛陽이 天寶14年(755) 12月 安祿山의 反亂軍의 手中에 들고 其後 半年에 玄宗이 長安을 脫出 蜀으로 逃亡가다.

以來 官軍과 賊軍과의 攻防戰이 이어지고 더군다나 飢饉이 襲來하여 社會情勢는 매우 混亂하다. 至今 漂泊의 旅行中에 夔州에 寄居한 杜甫는(56歲) 十餘年의 有爲 轉變을 回顧하면서 悲嘆과 그리운 望鄉의 悲愁를 늘뿐이다.

以上 唐詩巽에서 制限된 몇首만을 골라 나름대로 詩鑑賞을 해보았다. 무릇 詩란

---

“言志”라 하고 “思無邪”이어야 한다고 한다. 卽 詩란 뜻을 말하는 것이요. “思無邪”란 떠오르는 느낌을 거짓없이 眞率하게 表現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이와같이 詩란 多情多感한 詩人들이 스스로 보고 스스로 마음에 느낀 淸純한 眞情을 或은 優麗하게 或은 雄渾하게 吐露하여 우리에게 깊은 感銘과 共感을 주는 것이다. 喜悲交又되는 人生行路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慰安과 激勵을 주는 것이다.

記憶에도 새로운 6·25戰後의 荒廢한 祖國하늘을 바라보며 누구나 마음에 떠오르는 詩句는 “國破山河在”의 杜甫의 詩 “春望”이 아니었던가? 漢詩는 中國의 文學이 아니라 우리 文學의 一部이며 古來로부터 國民의 性情을 길러준 마음의 故鄉이다. 우리는 詩作과 鑑賞을 通하여 悠久한 自然의 審美感을 기르고 變轉無雙한 社會에 寄與하고 索莫한 人生에게 많은 裨益을 가져오도록 努力하여야 하겠다.



## 애향심 함양을 위한 지명유래 고찰

유현국민학교 교사 박 순 업

### 1. 서언

마을의 큰산, 골짜기, 고개, 큰 바위 등에는 언제부터인가 이름이 붙여져 오늘날 까지 불리워지고 있다. 이러한 이름이 붙여지기까지의 유래를 탐색해 봄으로써 애향심은 싹트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조사 대상을 지면 관계상 범위를 좁혀 공근면 상동리와 부창리 2개 마을로 한정하기로 한다. 홍천군 동면 좌운리와 접경한 이 두 마을은 평범한 산간 부락이지만 자랑스런 조상의 숨결이 담긴 향토사가 용해되어 있어 자라나는 2세들에게 향토애와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이 지역에는 석불, 조총장군, 임진왜란과 관련되어 붙여진 명칭이 많으므로 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지명 유래 고찰

#### (1) 임진왜란과 관련된 것

##### 가. 삼군이

삼군은 부창리 6반에 속하는 부락으로 동쪽은 감천면 병지방리 남쪽은 추동리와 접한 고산지대로 과거에는 여러 가구가 마을을 이루었으나 약 1시간 산 고개를 걸어 넘어야 하는 불편함과 자녀교육 문제로 지금은 몇 집만이 고향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이곳은 의병들이 임진왜란당시 동, 남, 북 세 곳에서 동시에 집결하여 왜군 섬멸 작전에 대비 삼 군대가 합동 작전을 펼쳤다하여 삼군이라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 나. 궁터

궁터의 동쪽은 삼군이, 남쪽은 재사봉이 높이 솟아있고 북쪽은 관심산이 둘러있

으며 입구에는 용수골로 터져있는 천혜의 요새로 되어있다. 임진왜란 당시 삼군이에 주둔하고 있던 아군 일부가 재사봉을 점령하자 추동리, 대관리에 있던 왜군 300여명이 삼배 고개를 넘어 다른 곳 왜군과 합세하여 궁터로 쳐들어 올 당시 아군은 궁터 주위 야산에 은신 재사봉의 아군과 합동작전으로 용수골로 물러오는 왜군을 활만 가지고 물리쳤다하여 궁터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궁터는 마을을 이루고 사람이 살았으나 지금은 타 지역으로 모두 이주 집터와 대추나무, 살구나무 울타리만 외롭게 빈 마을을 지키고 있다.

#### 다. 종달 바위

삼군이와 궁터 경계에 약 5~6m의 큰 바위가 우뚝서 있는데 임진왜란 당시 3대장이 은신 왜군 섬멸 작전을 밤낮없이 의논하여 마침내(終)달성(達成)하였다하여 종달바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 일설에 의하면 젊은 여인이 아기를 데리고 이 바위 옆에서 목욕을 하다 다래, 머루넝쿨 틈으로 웬 스님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보고 마을로 돌아와 보니 왜군의 첩자가 스님으로변장 천렵을 하고 있던 주민에게서 막걸리를 얻어 마시는 척 하면서 바랑 속에서 칼을 꺼내어 목을치고 간 것을 알게되었다. 그 젊은 여인은 의병과 함께 뒤 쫓아 가 보았으나 온데간데 없어 이 바위에 앉아 흐느끼며 종달 거렸다 하여 종달바위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 라. 관심산

부창리 마을 앞 큰 산이며 삼군(三軍)이와 삼배리의 뒷산으로 부창리쪽은 깎아 올린듯이 가파르고 삼군이 삼배리쪽은 순탄한 것이 마치 서의 내부와 외부 같은 모습이다.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게 쫓긴 의병과 관군이 삼군이에 와 있을 때 왜군들의 동향을 살피며 군사 훈련을 하였다는 데서 유래된 것이다.

#### 마. 소주골

상동리 북방에 소주골이라는 깊은 계곡이 있는데 이 골에서 임진왜란때 서씨와 조씨가 피난하였다 하여 소주골(徐趙谷)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2) 조충장군과 관련된 것

#### 가. 삼원수골

고려시대 조영인과 그의 아들 조충, 손자 조계순이 3대에 연이어 높은 벼슬을 지냈다 하여 3원수라 하며 이곳 세덕사에는 3원수의 영정을 모시고 마을 이름도 삼원수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 나. 망제 모래이와 망배 모퉁이

부창리에서 뱀 고개를 오르기 전 지명을 이와 같이 부르는데 전란에 전사한 주민 중 그 유해를 찾지 못하여 제사를 배설, 전사한 자의 위령제를 지냈다 하여 망제 모래이라고 하며 조씨문중에서 3원수 사당인 세덕사를 찾아 올 때 이 곳에서 세덕사를 향하여 절을하고 상동리로 향했다는 데서 망배 모퉁이라고도 한다고 전해오고 있다.

#### 다. 뱀 고개

조충장군을 이곳까지 배웅하였다 하여 고개 이름이 이와 같이 붙여졌다고 하며 또 일설에 의하면 이 마을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떠날 때 이곳까지 배웅하였다 하여 배웅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음이 생략되어 지금은 뱀 고개라 부르고 있다.

### (3) 석불과 관련된 것

#### 가. 부처어

옛날에는 부창리와 상동리가 한 마을이었으며 돌부처가 있었던 관계로 부처이라 불려왔다. 석불좌상 2개와 3층석탑 2개 중 고려초에 만들어진 석불좌상과 3층석탑은 일제말기에 형성 3.1공원으로 옮겨져 지방문화재 22호, 23호로 지정되어 있다.

#### 나. 돌부처 거리

상동리 지방도로변 논 가운데 신라말기의 작품인 석불좌상과 3층석탑이 있어 이곳을 '돌부처 거리'라고 부르고 있다. 이 석불과 석탑은 지방문화재 20호, 2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돌부처와 관련된 이곳 사람들의 애환이 다음과 같은 전설로 남아있다.

##### ① 내외불의 불화설

옛날 솟부처와 암부처는 이웃하여 있으면서도 화합하지 못하고 항상 불화하던 중 하루는 밤중에 뇌성벽력이 천지를 진동하더니 괴이한 광채가 양편에서 번쩍이면서 으시으시한 무서운 싸움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튿날 아침 솟부처는 목이 부러져 떨어지고 암부처는 앞시내를 건너 산을 넘어 부창리 골짜기로 이거하였다고 한다. 부러진 부처의 목은 근래의 시멘트로 땀질되어 있는데 아마 벼락을 맞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훼손되었으리라 생각되며 부처의 목이 떨어졌으니 감당하기 어려운 죄의식 때문에 합리화 시키기 위하여 그 옛날 만들어진 전설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 ② 속골

암부처가 솟부처와 싸우고 부창리 골짜기로 이거하였다 하는데 부처가 머물렀다

하여 이곳을 숙골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부처가 이동해 간 자리는 초목이 자라지 못하였다고 한다.

### ③ 초옥과 빈대

옛날 이 곳 주민들은 성스럽게 여기는 돌부처가 노천에 있음을 안타깝고 죄스럽게 여겨서 불안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중 의논 끝에 돌부처가 눈·비와 이슬을 맞지 않도록 초옥 한 간을 세우게 되었다. 물론 그 후 부터는 비 바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웬일인지 마을 전체에 피부병과 빈대가 만연하게 되어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

하루는 노승이 이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사정을 호소하니 돌부처에게 초옥을 지어준 탓이라 하여 주민들은 어쩔수 없이 철거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이상하게도 피부병은 씻은듯 완쾌되었고 빈대도 흔적을 감추었다고 한다. 지금도 돌부처는 허허벌판 논 가운데 천년을 풍우에 시달리며 목상에만 잠겨있다. 아마 이러한 돌부처에게 미안한감과 잘 안치하지 못한 주민들의 죄송한 마음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전설은 아닐런지 생각해 본다.

### ④ 그후의 돌부처 이야기

고려초에 만들어진 석불은 석탑과 함께 황성 3.1공원으로 옮겨져 있지만 신라 말기에 만들어진 솟부처라 불리는 석불은 석탑과 함께 상동리 도로 옆 논 가운데 마을의 역사를 증명하듯 꾀꾀이 천년을 버티고 앉아있었다.

그런데 1989년 10월21일 오전 8시10분 교무실에 출근하자마자 6학년 미정이를 비롯하여 상동리 어린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큰일났다고 했다. 어제 오후 집에 갈 때도 괜찮았는데 석불의 몸체는 쇠괴챙이에 긁힌 자국이 있고 석불의 머리를 누가 간밤에 떼어 갔다는 것이다.

천년을 풍우에 시달리면서 고장 사람들과 애환을 함께하며 슬한 전설을 만들어 낸 돌부처, 전설속에서처럼 그 못된, 민족의 양심이 마비된 도굴꾼을 벌줄수 있는 신통력이 돌부처에게 있었으면! 삼층석탑과 함께 버티고 앉아있는 머리없는 돌부처는 보는이의 마음을 얼마나 쓸쓸하고 아프게 할까.

### 다. 절골과 성덕사지

상동리의 절골은 전설에 의하면 옛적에 태학승이란 고승이 이 골에 큰 절을 세웠다하며 절 이름을 성덕사라 불렀다 한다. 지금은 다만 이곳 전지에서 기와와 토기의 편물이 눈에 띄이며 층암 절벽에는 동굴이 있어 그 넓이가 70㎡ 정도인데 불상 수점이 안좌하고 있어 기도의 장으로 인적이 끊이지않고 있다.

### 라. 송낙봉

송낙봉은 상동리 앞에 있는 해발 634m의 높은 산으로 이 고지대에는 송림이 울

창하였다. 그런데 이 소나무에는 '송나'라는 소나무 겨우살이가 기생하였다. 옛날 성덕사에서 수도하던 여승들은 이곳에 올라가서 송나를 뜯어다 송나 싹갓을 만들어 쓰고 다녔다. 그후 부터 이 산봉우리를 송낙봉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마. 만대폭포

상동리 5반의 어영골 뒤 높은 산에는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다고 전해지며 높이 3m의 폭포수가 있다. 해마다 이곳 폭포수에는 불교 신도들이 석가탄신일이나 불교 행사 때 찾아와서 금줄을 매고 불공을 드리며 폭포물을 맞는다. 장마철 폭포수 물기둥은 장관이며 골짜기를 진동시킨다. 이 폭포물은 맞으면 연중 모든 액운이 물러나고 피부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지금도 폭포물을 맞으러 오는 사람이 많다.

#### (4) 기타

그밖에 이 지역에는 선강정, 불탄터, 행성고개, 용바위 등 옛날부터 구전되어 오는 전설이 많이 있는데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 2. 결 론

언제부터인가 구전되어 오는 설화와 전설에는 먼저 살다 간 향토 선열들의 생활 모습과 회로애락이 묻혀 있어 이를 고찰해 봄으로써 향토인으로서의 긍지와 애郷심을 갖게할 수 있을 것이다. 상창국민학교 통학구역인 이 두 마을은 평범한 산골 마을이지만 선조의 기쁨과 애환이 담겨 있으며 역사적으로 음미해 볼 가치를 느껴, 어렵듯이나마 더듬어 보았다. 아마 이 두 마을 뿐만아니라 우리 황성 마을마다에는 역사적 향기가 내포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좀더 뜻있는 분들의 노력으로 향토사를 발굴 체계화하여 고장을 지키며 먼저 살다 가신 조상의 일을 계승 애郷심을 북돋울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

박순업/출생지 및 주소 황성읍 조곡리 277번지

황성 중고등학교 및 춘천교육대학 졸업

덕고, 우천, 황성 상창국민학교 근무

1981 전국자료 공모전 우량상 입상 (강원도의 3.1운동 유적지)

1982 전국 현장교육 연구대회 1등급 입상 (황성의 항일운동 연구)

1987 황성군 향토 문화상 수상

현 유현국민학교 근무

## 마지막 理髮

卓 洛 龜

황성읍 삼일광장 사거리 右側 二層에 서울이발관이 있어 내가 5.6년 전부터 단골로 머리를 깎으러 다니던 곳이다.

젊은 이발소 主人 내외는 내가 이발하러 갈 때마다 親切하게 對해 주었고 집안과 직장의 安否도 물으면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60余分의 理髮 시간을 지루함이 없이 한달에 두번씩 드나들어 왔었고 徐氏는 머리를 감아 주었고 부인은 면도를 해주었다.

더욱이 지난 8月 20日 停年退任式場에 초청도 못했는데 찾아와 祝賀를 해준 徐氏내외에게 감사하고 있다. 1.2년에 한번씩 바뀌는 理髮師들도 모두 親切하고 좋은 사람 들이었고 잘못 생긴 내 머리를 다듬고 깎느라 手苦가 많았었다.

그런데 지난 9月 9日 理髮하러 서울 이발관에 들렀더니 主人 내외와 이발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의 理髮은 이곳에서는 이제 마지막 이발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단골로 찾아 주어서 고맙다고 하며 커피를 시켜다 주면서 못내 아쉬워 하는 모습들을 보고도 5.6년 단골로 다니다 보니 情이 들었는데 헤어지게 되고 보니 마음 한 구석이 텅 빈것 같은 섭한 마음 금할길이 없었다.

머리를 깎으면서 이발관 영업을 그만두게 된 까닭이 무어나고 물었더니 徐氏 부인 말이 저희 부부가 6.7년간 결심하고 부지런히 일해온 결과 돈을 좀 모았습시다. 그래서 公根面 新村里에 논을 다섯마지기 사 놓았고 原州市 明倫洞에 단독 주택 한채를 사놓아 秋夕節만 지나면 原州로 移舍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는 祝賀 한다고 말 하면서도 왜 모두들 故鄉을 등지고 外地로들 나가야만 하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여러가지 까닭이 있겠지만 내 故鄉 橫城도 좋은 곳인데 하며 故鄉禮讚도 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原州 等地로 나가는 것에 안타까움마저 느끼게 된다.

---

李白의 詩 “鳳凰樓에서” 가운데 二水三山의 고장이 바로 내 故鄉 橫城이 아닌가  
梅花山과 泰岐山 그리고 五音山을 背山으로 德高山과 國事봉 그리고 삼배산 사  
이를 흐르는 前川과 後川의 섬강물이 合水 되는 능골 앞 모래 틈에는 예로부터 백  
로가 노닐었고 豐年을 구가하던 淳朴하고 人心좋은 내故鄉 이렇게 좋은 곳을 왜  
많은 사람들은 떠나야만 하는가 안타까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나

나는 學窓時節과 職場生活을 合해 外地生活이 10余年 밖에 안되지만 三年前 어  
느날 갑자기 美國 生活 40余年이 넘는 친구 柳君이 찾아와 故鄉이 그리다면서 死  
後 故鄉에 묻히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횡성 시내를 한바퀴 돌아 三一公國에 올라  
옛날을 回想하다 떠나간 일과 90노구에도 내가 횡성국민학교 재직 시절인 4.5年前  
에 해마다 三年에 걸쳐 찾아오신 張錫潤翁의 故鄉이 그리웁고 옛날의 배웠던 母校  
가 보고 싶다는 말씀이 故鄉이 얼마나 좋으며 그리운가를 새삼 느끼게 해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故鄉 橫城의 發展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애써 오고 있다 더욱  
발전 시켜 고향을 등지고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 올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  
을까

原州로 移舍를 나가는 徐氏내외도 다시 故鄉에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을 생각하  
면서 이발소 계단을 무거운 마음으로 걸어 내려온다.

# 덧



대동여자중학교 교사 권용환

두엄더미 풀들이 썩(성)내듯 무섭게 솟아 오르는 초봄이다.  
 바람불어 소란하던 낮에 어수선했던 가라앉은 오후 건너마을 응달이 자옥한 안  
 개속에 묻히는 황혼이다.  
 허리가 아프도록 손질해 놓은 그물을 꺼내 오토바이 뒤에다 싣고 개울둑을 달린  
 다.  
 미리 짐쳐 두었던 곳에 닿았다.  
 죽대질, 낚시질, 그물놓기 22년의 연륜속에 고기의 성질 심리까지 터득한 나는  
 이 개울의 고기분포를 완전히 파악하여 기호에 따라 오늘은 매운탕 고기를 잡으려  
 고 이곳에 닿았다.  
 윗쪽은 물이 여울져 흐르다가 아래로는 잔잔한 웅덩이진 곳이다.  
 웅덩이진곳 양편에는 큰돌이 많고 너겅이 있어 "격지" "동자개" "뚜구리" "깎딱메  
 기" "매자" 등 매운탕에 맛을 돌구는 고기가 들끓을것 같다.  
 기대와 자신에 차서 급해진 마음으로 가슴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선  
 다.  
 이끼 낀 돌이 미끄러워 잘못하면 손으로 허공을 치며 나가 자빠질것 같아 여간  
 조심스럽지 않게 점점 깊은쪽으로 들어간다.  
 건너편 개울 가에서부터 그물을 놓기 시작한다.  
 그물 밑이 들릴까봐 조심스러이 그물을 치며 건너온다.  
 다 치고는 확인하기 위해 그물 옆을 다시한번 살핀다.  
 "매자" "모래무지"가 히득 히득 그물에 걸려 몸부림 친다.  
 성질급한 "매자"와 "모래무지"는 내 발자국 구정물에 먹을것이 있는줄 알고 달  
 려 들었다가 그물 코에 가슴이 엉켜 걸리고 만 것이다.

---

나는 독에 올라서서 가끔씩 물위에 뜬 날파리를 먹기 위해 피라미 치리가 물위로 뛰는 것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린다.

'어리석은 놈들! 물불을 모르고 덤비는 부나비 같은 놈들!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한 놈들! 송아지처럼 떼지어 물러다니는 철없는 것들! 오늘 죽는걸 모르고 열흘 살것을 생각하며 천둥에 개 뛰듯하는 것들! 암컷의 유혹에 그물이 안보이는 실성한 미친 것들!'

저건너 산밑 동네의 외동에 불이 들어왔다.

나는 제방둑 밑 넓적한 돌위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았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서쪽에 후광의 여운이 마지막 사라진다. 수많은 반짝이는 별들이 서울 시내 네온과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상가 휘황한 불빛과 같다.

영동의 유흥가가 생각한다.

조용해진 밤 물에 흔들리는 별빛들이 유흥가 네온보다 더 요란하다.

저 물이 영동이구나! 그래 고기들의 영동이야!

————— × ————— × ————— × —————

네온이 요란한 큰 건물과 술집은 저 물속에 큰돌과 바위 굴과 같고 여울 위에서 떠내려온 찌꺼기들은 고기들의 진수성찬이며 술, 담배 탁한공기는 저 흐린 물이다.

술 취해 일렁이는 노래와 춤, 나이 어린 여인의 나체가 출렁이는 무대, 술취해 겨안고 돌아가는 남녀의 몸부림은 더러운 죄악이 썩어 뭉쳐진 덩어리들과 같다.

셋방 사는 주체에 젊은여자 여우짓에 몸 못가누며 방황하는 저 못난이!

첫애인과 헤어진 이야기에 눈물젖는 그 여자를 술먹여 끌어안고 여관문 여는 팔푼이!

날이 새면 비맞은 강아지되어 해장국집 구석에서 가슴 움켜잡고 약봉지 털어놓고 물마시는 그 못난이!

화장독에 얼굴 시퍼렇게 죽은 타락한 그 여자!

자식과 남편사랑의 본능마저 배신당한 그 여자!

낮에는 버려지는 여자!

어둠과 네온 불빛 아래서만 반짝이는 여자!

---

영동의 인간 쓰레기장에서 뒹구는 여자!  
다음 역은 화장터인 여자!  
나는 고기에 하나님이 되어 이곳에 그물을 쳤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그물을 치실  
까?

여러겁(劫) 인간을 그물로 심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국에 브라질에  
덴마크에 태국에 일본에 그물을 던졌으리라!

이제는 서울 영동에 청량리 뒷골목에 던져질 차레가 아닌가?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소돔성된 영동과 청량리에 그물을 치실 것이다”  
에이즈 그물, 살인 폭행의 그물, 자동차 사고의 그물, 병마의 그물, 타락 고독  
번뇌 불안의 그물, 이혼 가출 인신매매의 그물, 공갈 사기의 그물……

————— × ————— × ————— × —————

열흘 달이 은은하게 온 누리를 비치며 사방은 점점 고요에 쌓여 물소리만 소스  
라치게 들려 밤바람에 오한을 느낀다.

술술 건져 볼까?

얼마나 걸렸을까?

궁금하고 기대에 차 침범침범 물로 뛰어든다

전등으로 비쳐보니 회곳회곳 꽤 많이 걸렸다

꿈치만한 치리가 두마리 예상대로 매운탕 재료가 풍족할 것 같다

건너 편에서부터 그물을 걷기 시작하였다

성질 급한 “매자” “모래무지”는 이미 죽어 매달려 올라온다.

뚝심센 두구리는 꽤 퍼덕댄다.

끈기있는 갈떡메기 꾸물꾸물 꿈틀댄다.

툭날같은 침을 뱉친 누런 “동자개”는 힘빠져 쳐늘어진다.

가시세운 꺾지는 입을 악물고 아가미 가시만 앙크렇게 세우며 매달려 올라온다.

중간쯤 걸는데 깜짝 놀랐다.

넘적하고 무직한 것이 꾸물댄다.

올려보니 “자라”였다.

목이 쪽 들어간 자라 배가 흰누렇게 보인다.

앞 뒷다리에 걸려 버둥댄다. 여유가 있는 자라, 끈기와 인내와 지구력을 갖춘

자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겠지 하는 모습이다.  
 나는 그물 걷는 재미에 고기를 잡는다.  
 흐뭇한 나는 비료 포대에 그물을 넣어 오토바이에 싣고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집으로 달린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을 불러댄다.  
 「집혁아」 「현수야」 「성혁아」  
 부인도 나오고 어머님께서도 나오셔서 온 식구가 신기한 듯이 들여다 본다.  
 물 비린내와 고기 비린내가 코를 역겹게 한다.  
 옛날 수렵·천렵 생활의 본능이 있어서인지 흥미와 신기함으로 들여다 본다.  
 그물을 걸어놓고 따기 시작한다.  
 “모래무지” “매자” “치리” “피라미” 등 따기쉬운 것은 식구들이 따고 나는 따기 나  
 뿐 “동자가” “격지” 등을 찢다.  
 왜오래 찢다.  
 큰 대야에 그들먹 하다.  
 한참만에 대야의 고기들은 조용히 이리저리 되는대로 누워 침묵과 죽음과 고요  
 뿐이다.  
 나는 한참을 들여다 본다.

————— × ————— × ————— × —————

‘사람도 술과 여인과 돈이 들끓는 곳 유혹과 쾌락과 흥분과 분노와 타락과 절망  
 과 피곤과 저주와 기만과 사기가 난무하는 곳에서 어물대다가는 그물에 걸려 무의  
 미하게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를 악물고 냉정하게 미련을 버리자!

산골짜기 계곡 깨끗한 물가에서 자연의 아름다운 교향악을 나무와 풀과 달과 별과  
 새와 가난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속에서 노래부르며 이야기하며, 종알대는  
 물소리와 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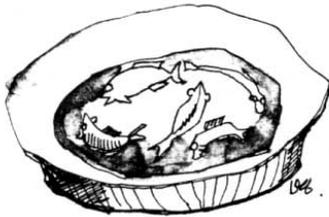
그물치는 걱정이 없는곳, 덧과 차우가 없는곳, 늘 평화와 기쁨만이 잔잔히 여울  
 지는곳, 아침 안개가 걷우면 찬란한 햇빛의 은총이 쏟아지는 곳에서 피조물의 연  
 약함을 인식하고 적은 일에도 감사하는 무릎을 꿇고 생을 꾸려 가야겠다.’

————— × ————— × ————— × —————

---

달이 좀 기울었다.

아침에 일어난 매운탕을 생각하며 잠을 청하였다.



---

본적: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조곡리  
대동여자중학교 근무

수필

## 잃어버린 동심 (童心)



황성우체국장 최 증 식

8월의 어느 오후.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작열하는 태양별은 마지막가는 여름을 질투라도 하는 듯 폭염을 한껏 발산하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동구밖 개울가로 달려가 물장구치며 놀던 어린시절의 나로 되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솟구쳤다.

결혼이후 한번도 가장으로서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갖지 못하며 살아왔던 나는 모처럼 오랫동안 가족들과 함께 주말을 이용하여 그 옛날 동심을 키워 왔던 시골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말로는 삶의 경쟁속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 변명하며 가정을 등한시하여 왔던 지난날. 어느새 나의 머리도 흰머리가 하나 둘 늘어가고 이마에도 주름살이 늘어만 가게되고 보니 지나온 생활을 너무나도 무심하게 보내온 것 같다. 그러한 나를 말없이 지켜 보아주는 아내와 두아이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뿌듯한 고마움이 가슴에 사무쳐 온다. 한번 태어나 온갖 세상풍파를 겪으며 덧없이 가버리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이렇듯 무미하고 재미없는 나를 언제나 곁에서 뒷바라지해주는 아내와 작은 두귀를 쫓듯 세우고 퇴근해오는 나의 두팔에 매달려 하루의 일들을 조잘대며 어깨를 주물러주는 두아이에게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한가정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싶어 이렇게 고향을 찾게 된 것이다.

차창밖으로 스쳐가는 온갖 풍경속에서 계절이 변하고 있음을 알았고, 많은 피서행렬속에서 비로소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나의 마음은 어린 아이처럼 마냥 들뜨고 있었다. 옆에 앉은 아내와 두아이도 오랫동안의 나들이가 무척이나 설레이고 즐겁기만 한 모양이었다.

그 옛날 맨발로 뛰놀며 잠자리잡던 오솔길과 뒷동산 잔디밭에 누워 흘러가는 물

---

개구름 바라보던 그 언덕.

버들가지 꺾어붙며 황소타고 달려가던 들관과 알알이 영글은 포도덩굴사이로 떨어진 알밤을 줌던 과수원.

이 모든것을 머릿속에 그리며 나의 발걸음은 한껏 가벼웠었다. 그러나 잠시후 나의 마음은 허무와 실망으로 가득차게 되었다.

오두막 지붕위의 둥근 고지박은 간데없고 지금은 스퀘트 지붕위에서 어찌다 바람결에 날아온 감나무잎이 한두잎 나뭇굴고 있었고, 비만오면 찬란한 무지개빛속에 온통 개구리와 지렁이의 놀이터였던 앞마당은 이제는 딱딱한 시멘트 바닥으로 변하여 개미 한마리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렸다. 꿈과 낭만이 깃들었던 그 옛날 원두막은 어느새 휘황찬란한 상제리에가 반짝이는 양옥으로 변하여 구성진 아리랑가락 대신에 돌아와요 부산항이 울려터지고 있었다. 구슬프게 울부짖던 느티나무의 매미소리는 들리지 않고 지나가는 경운기 소리가 온통 드넓은 들녘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물방개 잡던 앞도랑의 갈대늪속에서 들려오던 동심들의 함성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제는 흰수염에 허리꼬부린 노인들이 흙을 버리고 떠난 젊은이들을 환탄하는 한숨만이 온 마을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다. 밤새껏 모닥불 연기속에서 할머니 무릎을 베고 옛날얘기 들으며 느꼈던 단란한 가족들의 사랑도 이제는 밝은 형광등 밑에서 T.V로 소일하는 노인들의 외로운 모습만이 눈에 아른거릴 뿐이다.

이 세상 모두가 변하여 가고 있으니 여긴들 왜 변화가 없었겠는가마는 나의 기대는 어린시절로 되돌아 가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찼고, 또한 삶에 지친 육신과 마음의 어지러움을 고향땅에서 달래고 싶었다. 삭막한 아파트의 숨통에서 벗어나고, 공해의 검은 하늘속에서 뛰쳐나와 밝고 싱그런 공기속에서, 그리고 풀잎속에서 나뭇굴고 싶었으며, 나의 두아이에게 맑은 동심을 일깨워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산은 옛산이로되 길은 옛길이 아니었으며, 새소리 또한 맑지 못하고, 넘나들던 다람쥐도 떠나간지 오래였다.

몇시간을 혼자서 헤매었던만 30여년전의 그 정취는 한곳도 찾아볼 수 없었고, 남은 것이라곤 잃어버린 나의 어린시절에 대한 갈망밖에 없었다.

하루가 다르게 기계가 바뀌어가고 한시간이 다르게 유행이 새로와지며 일분이 다르게 사람의 마음이 변하여가는 현실, 물질만능과 기계만능이며 자본제일과 권력이 최고인 지금이다보니 눈만뜨면 살인이요, 인신매매이고, 눈만 감으면 쾌락이

---

요. 퇴폐가 되어가고 있다. 용돈 몇푼에 하늘과 바다같은 아버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머니를 칼로 찢러 생명을 끊는 삭막한 세상이 되어 버렸고, 고추 몇근 탈취하기위하여 백발이 무성한 노파를 무참히 살해하는 비정한 오늘이 되었다. 또한 순간의 욕정을 참지못하고 만삭이된 아녀자를 가족앞에서 인륜을 무참히 짓밟아 한가정을 파괴해버리고도 한치의 뉘우침도 갖지않는 파렴치한 범죄들의 굴레속이 되어버린 그야말로 긴장과 두려움속의 하루 하루가 되어버린 것이다.

불신과 불안으로 가득찬 공간속에서 한줄기 빛과 같은 티없는 동심은 정녕없어진 것인가!

어린시절 순수했던 우리의 눈은 비록퇴색되어버렸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자연은 우리모두에게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며 맑고 신선한 공기와 함께 심장이 용솟음치는 생기를 주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라도 저 푸른하늘 아래의 드넓은 대지를 마음껏 달려가보자. 그리고 붉은 태양을 향해 두팔 벌리고 큰 기지개를 켜보자. 단 하루만이라도 그동안 잊었던 우리들의 동심을 되찾아 보도록 하자. !

---

최중식/ 출생 : 강원도 명주군 연곡면 방내리 1949년 1월 19일생

경력 : 1969. 8. 11. 강릉우체국에 신규임용

1987. 1. 21. 행정사무관에 임관. 동해우체국업무과장

1987. 12. 2. 부터

1990. 2. 18까지 평창우체국장으로 근무

1990. 2. 19부터 현재까지 횡성 우체국장으로 근무

## 황소갈보



백 영 호

“얼마라고요.”

나는 잘못들었나 싶어 내귀를 의심해 다시 한번 더 물어보았다.

“네 이천오백만원 이라고요 사모님 이걸 정말 좋은 중국산 비취랍니다. 이런 물건 나오기 정말 힘들니다. 마음에 있으시면 구입하시죠 단골 손님 더 모시는 기분으로 잘해드리겠습니다.”

사모님 소리를 계속하며 힘도 들이지 않고 이천오백만원 운운 하는 그 사람이라도 기가막혀 옆에 있던 울케의 팔을 끌면서 “죄송하네요.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며 비웃음으로 쳐다보는 눈초리에 뒤통수가 뜨거워 얼른 그자리를 뜨면서 내 눈에 띄었던 비취반지가 얄미웠고 호기심에 그 값을 물어 보았던 세치 혀가 원망스러웠다.

‘세상에 말도 안돼’

이천오백만원이라니 이천오백만원이 어느집 강아지 이름이라도 그렇게 입에서 술술 나오지는 않을것이다 싶은 생각에 공연히 서글퍼졌다.

오랫만에 서울 친정나들이에 울케와 같이 차시간도 많이 남았고해서 고속터미널 가까운 백화점에 구경을 갔다가 보석상에 하도 빛이 고운 비취반지가 진열장에서 반짝이기에 다 늙은것은 생각도 않고 여자라는 호기심에 물어보았다 생김 몇시간 전의 일을 생각하며 기분이 영 개운치를 았았다.

다락같이 올라가는 전세방값에 몇백만원을 충당못해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

도대체가 이천오백만원짜리 반지를 손가락에 끼는 여자들 남편은 어떻게? 무슨 수로 돈을 벌까? 생각해 보았다. 빚나간 정부행정의 처사에 지하경제로 숨어들어

돈을 번 사람들일까?

부동산 투기로 갑자기 줄부가된 사람들의 마누라들일까?

아니면 뇌물받는 고급관리의 마누라? 아니면 노동자들 저임금 주면서 알뜰한 주머니 착복한 악덕 기업주들의 마누라들일까?

달리는 버스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니 오작육부가 이동을 하여 복통이 나는것 같았다.

(나의 성격이 못된탓일까?.....)

창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갑천면 한치고개까지 왔다 이 고개는 옛날에 하도 험하여 이 고개를 넘자면 다리와 머리의 거리가 한치밖에 안되게 험했다하여 한치고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오른쪽으로는 저수지가 있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며 잉어와 붕어가 많아 낚시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저수지에서 쳐다보면 산 중턱에는 일년전에 새로생긴 깨끗하게 잘 다듬어진 묘가 하나 눈에 띈다.

갑천면민이나 자주 이앞을 지나다니는 청일면이나 서석면들도 이묘가 누구의 묘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것 같다.

이 묘는 애국지사 김 순이 여사님의 지묘라고 한다.

여사께서는 1878년 10월 15일 경주읍 서부리 김해김씨 문중에서 태어나셨으며 1898년 10월 19일 안흥면 안흥리 박영화씨와 결혼하여 황성읍 옥동리와 갑천면 구방리를 거점으로 가난과 세파에 시달리면서 애국의 일념으로 생활하시다가 1952년 12월 19일 한많은 생을 마치셨다한다.

기골이 장대한 여사께서는 뜻하신바있어 당시 천대받던 주막을 경영해서 일명 황소아줌마는 또는 황소갈보라 불리우셨다고 한다.

푼푼히 벌여 모은돈으로 애국지사이신 갑천면 화전리 최 양옥 선생의 독립운동을 도우셨고 자금모금에도 많은 협력을 하셨다고 한다.

(요즘 최 양옥 선생의 기념비를 세운다는 소식을 들었음)

삼일운동때는 자신의 주막을 모의 장소로 제공하여 하 영현 강 달회 강 승문 전 한국 강 만형 의사들을 도우셨으며 수 많은 지사가 투옥되었던 4월 1일 황성장날 독립만세 사건때에는 일경에 쫓겨 술집에 숨어든 동지들을 규합 군중을 진두지휘하시다 투옥됨으로써 황성 3.1 독립만세 운동을 성취시키신 전설적인 여인이시라

---

고 하신다. 자손은 절손되고 난중에 소실된 기록을 생기는 후사가 없어 찬연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보훈의 대열에 들지 못하고 갑천면 구방리 공동묘지에서 실묘의 지경에 이르러 실로 애석함을 금할길 없었던 바 다행히 이를 안타깝게 여기는 군민의 뜻이 있어 이곳에 안장하고 여사의 드높은 애국의 뜻을 기리며 후세의 귀감을 삼고자 비를 세웠다고 한다.

나는 김 순이 여사님의 묘를 쳐다보며 조만식 선생의 조선물산 장려회를 생각하며 잠시라도 사치와 허영에 눈을 돌렸던 내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워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 같아 양손으로 두뺨을 감쌌다.

주막을 경영해서 천박한 생활이라 비록 갈보 소리는 들으셨을 망정 그 찬연히 빛나는 김 순이여사님께 누가 감히 정조 관념이 없는 요즘의 갈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에……

김순이 여사님을 생각하며 사행시를 하나 지어보았다.

황 황금보다 더 빛나는

소 소금보다 더 소중한

갈 갈고 닭은

보 보석이라도 김 순이여사님 업적만은 못하리라.

혼자 중얼거리보며 뵈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김 순이 여사님을 본 받아 나라에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충성하는 여인네가

지아비에게는 부덕을 고루 갖춘 지어미가

자식들한테는 좋은 어미가

이웃간에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여인네가 되어야겠다 생각하니 내 고장에 이렇게 훌륭한분이 살아계셨다는 자랑스러움에 가슴이 뿌듯해 지는 것 같았다. 수준미달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향락문화만 발달 시켜놓아 사회는 좀먹어가고 값비싼 외제품만이 제일좋은 상품으로 착각하는 비뚤어진 청소년들이 늘어남에 안스러운 생각이 든다.

멋이란

돈을 많이 주고산 값비싼 것이 아니라 값싸고 실용적이며 자기 개성에 맞게 내는 것이 정말 멋쟁이인데 싶은 생각에 몇년전에 사 즐겨입는 스카트를 만져보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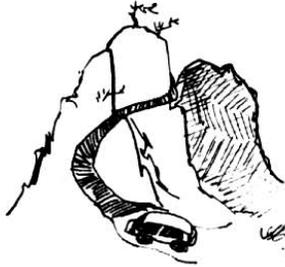
---

다.

달리는 버스 창밖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은 높고 푸르러 한가로이 두둥실 떠 있는 흰구름이 평화스럽기만 하며 길가에는 가을의 여신인 연 보라빛 들국화가 곱게 피어 바람에 흔들거리며 춤을 추고 있었다.

이 가을

내 마음도 따뜻한 인정이 알알이 오롯이 영그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 “애기막내”

김종구

“엄마 나 무서워 빨리와!” 애 엄마가 어디 간다면 하루 종일 빈집이된 우리집에 학교에서 제일먼저 귀가해온 병은이가 혼자 있게 되므로 아침 밥상부터 울상이다.

이런 막내가 이제 5학년이 되어 친구 아이들도 불러들여 제믹스 놀이도 하고 서로 토론식으로 공부하는 모습이 귀엽기만 하다.

성당에도 잘 다니더니 요즈음은 복사도 꽤 잘 하는가 보다.

고모가 주신 소년소녀 세계 명작소설도 여러권 읽어 본 모양이다. 이솝 이야기, 걸리버 여행기, 피노키오, 피터팬, 서유기 또 삼국지도……

헌데, 지금도 공장에서 늦게 돌아온 엄마가 미처 앉기도 전에 매달려 젓무덤을 만지니 역시 우리집 ‘애기 막내’일 수 밖에…… ‘뭘? 밤새도록 엄마 젓 만지고 싶어 아빠 숙직날만 고대한다고?, 남이 알면 흥 본다, 이눔아!’

이런 애들이 자랑스러워 과일 이라도 사들고 들어가니 막내가 “아빠 오늘은 술 안잡수 셨어요?” 한다. “그럼! 왜 내가 술만 먹는 아빤줄 아니?” “아니요 술 안잡수시고 오셔서 참 좋아요!” 옆에 있던 큰 딸애가 작은 소리로 “건강에도 좋코 좋코”하고 흥얼거린다. 순간 “쩍!” 내 마음속 깊이 와 닿는 이 양심인들 어쩔수야, ‘애들한테 잘해줘야지!’ 마음속으론 이렇게 외치며 애들에게는 “뻑!” 소리지르고 얼른 욕실문을 쾅! 샤워 꼭지를 튼다.

내가 어찌다 아이들에게 천원씩 이라도 줄때는 “공부 좀 해라! 해라!”하고 잔소리를 하니 어디 점수를 딸 수가 있나?

게다가 돈떨어져 찢쩍 땄때 속 모르는 마누라 왈 “누구네는 비디오 샀대, 누구는 자가용 샀대” 하니 ‘으이그 못 살아, 애들이라도 공부 좀 잘해서 이다음 나보다 더 잘 살아야 할 텐데’하는 생각만 든다. 괜히 심술이 나서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있

는 애들을 췌려보며 “이 마누라야 애들 공부를 하게 잔소리 좀 해라!”하고 버럭 소리 지르자 “왜 내가 가만 있기만 한줄 아세요? 재들도 잘 알아서 장래 걱정하며 열심히 공부하는데 웬 큰소리에요? 우리집 가족회의 한다면 4:1 이란 말이예요.”하고 대드니 참을 수밖에, ‘윈 처자식들이 똥똥 똥똥 가져고는, 에이!’

우리집 삼남매 고2, 중3, 국5의 용돈은 애들 엄마가 그때그때 주는대로 타쓰며 별 불평이 없다. 그러나 막내는 용돈이 부족하거나 더 필요하면 행동부터 좀 다르다.

오늘 아침만 해도 그렇다. 내가 막 출근 하려는데 막내가 책가방을 메고 시무룩 해가지고는 제 방문 손잡이를 잡고 열었다 닫았다 하며 누장을 부린다.

웁치! 때는 이때다. 아빠 점수 좀 따자! 바지 주머니에 손을 푹 찢러 보니 동전이 짹그락! 집히는 대로 두세개(백원 짜리든 오백원 짜리든)집어 “병은아!”하고 부르니 쪼르르 달려 온다. 형이 불까봐 얼만지도 확인도 안 해보고 두손으로 받아들고는 짹째 찹제를 내리뛰며 “고맙습니다”소리친다.

아래층 현관에 둔 자전거를 집어타고 신나게 학교 길을 달린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 나세요!”

‘병은아! 오늘은 이 아빠가 따봉이겠지?’

출생지/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386

경력/공무원 22년

직장/횡성군 우천면사무소 근무

## 아파트



임 교 순

영식이네는 도시 변두리 산마을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도시가 커진 것도 영식이 아버지 대에 들어 부쩍 발전하여 영식이네 산마을은 더욱 초라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멀리 바라보이는 빼죽빼죽 높아진 아파트와 넓은 길에 자동차의 물결이 흐르고, 봉하며 울리는 도시의 소음은 영식이네 마을까지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영식이네 집은 아직도 흙벽돌로 지은 집이고 마당 가에 펌프를 박아서 물을 먹습니다. 다행히 몇해전 전기불은 켜게 되었지만 비탈길에는 연탄 니아카만이 겨우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 살던 이웃도 한집 두집 시내로 돈벌이 가고 영식이네만 남아 있습니다.

“그놈의 조상, 조상, 조상 때문에 시내로 못들어가고 맨날 산비탈 밭 풀포기나 뽑고 땀에 젖어 살아야 허우.

영식이 어머니가 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소리 말어, 도시 집이 얼마나 비싼데, 우리 발똥기 팔아봐야 집도 안 돼, 집만 있으면 뭘하나 뭘로 벌어 먹어, 배운일 뭐 있다고, 남들처럼 장사 눈이 뻤나. 말주변이 있나, 배운게 농사일 뿐인데, 그나마 손 놓으면 밥 굶어, 괜한 투정말고, 돼지죽이나 쥐, “영식이 넌 공부 안하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 싸움을 하는 틈에서 영식도 화가 나서 투덜거렸습니다.

“다른 집 아버지들은 돈을 잘 벌어서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애들 용돈도 만원 짜리 준다는데 난 이게 뭐야. 맨날 돼지똥 냄새나는 집에서 사는데 공부 해라, 공부 해라. 지겨워 죽겠어.”

이놈아, 애비는 할아버지가 공부를 안 시키고, 일만 시켜서 농사짓고 가난하게

---

살았지만 네놈은 공부 좀 잘시켜 불러는데 맨달 비디오가게나 가서 세월을 보내!”

영식이 아버지는 이것이 큰 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님들에게도 돈을 많이 벌어 놓지 못한 것을 불평하는 것이 영식기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영식은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슬슬 비탈길을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신사 한분이 급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애, 너 여기 사니? 어른들 집에 계시나?”

영식은 신통찮게 대답하면서 언덕을 내려 뛰었습니다.

신사는 영식이네 집 앞에서 영식이 아버지를 보자 허리를 굽신대면서

“저 이택에 주인님이신가요?”

영식이 아버지는 의아한 눈으로

“네 그렇습니다만”

“아, 정말 반갑습니다.”

서두는 신사의 인사 솜씨가 무슨 부탁이 있는성 싶었습니다.

“저는 우성아파트 영업부장입니다. 혹시 이 산밭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벌써 다 알아보고 온 우성아파트 영업부장은 영식이 아버지에게 담배를 권하며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닥의 땅을 파십시오. 평당 백만원 드리겠습니다.”

영식이 아버지는 정신이 멍했습니다.

에이, 신사양반 농담마시오.”

“아닙니다. 적으시면 평당 5만원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영식이 아버지는 혹시 꿈이 아닌가 궁둥이를 꼬집어 봤습니다.

“좋습니다. 평당 10만원 더 드리죠, 대신 땅을 좀 빨리 비워주셔야 합니다.”

신사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어 도장을 찍으라고 서둘렀습니다.

영식이 아버지는 이 신사가 미친사람이 아닌가 고개를 가웃거리려 봤습니다.

“뭐가 의심 나십니까? 시청에도 다 허락을 받아 놓았습니다.”

영식이 아버지는 가만히 땅값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신이 아찔 했습니다.

“6억7천을 드리겠습니다.”

영식이네는 금방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조상이 돈 못 벌어놓았다고 몇시간 전에도 불평스러운 마음이었는데 영식이 아

버지는 발가에 산소를 바라 봤습니다.

—아버님, 이게 꿈이 아니겠지요. 아버님이 버신 땅을 제가 6억7천에 팔았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부자가 됐습니다.—

영식이 아버지 입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온 말입니다.

산소앞에 달려온 영식이 아버지는 산소 앞에 엎드려 절을 구부렁 구부렁 했습니다.

비디오 가게에 갔던 영식이 돌아와 아버지 걱정들을 일을 근심하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왜 저러세요. 나 공부 안 한다고…”

“영식아, 이제 우린 부자가 됐다. 부자가 됐단 말이야, 엄마는 돼지 죽을 만들지 않아도 아버지는 밭에 풀을 베지 않아도 놀기만 해도 살수 있는 부자가 됐어.”

영식이 엄마도 실성한 사람같이 영식을 부둥켜 안으며 숨 쉴틈도 없이 말을 해했습니다.

영식이네가 가꾸어 놓은 배추잎은 싱싱하게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돼지똥 냄새가 바람에 확 풍겨왔습니다.

영식은 신사가 다녀간 뒤 무슨 큰일이 생긴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정말 부자가 된 것일까?

아버지의 모습이 꼭 정신나간 사람같이 할아버지 산소에 절을 하며 좋아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 되었습니다.

“영식아! 우리는 이제 부자다. 멋진 집에 자가용도 사고, 에어컨도 놓고 또 뭘 해야 하니?”

영식이 아버지는 영식을 할아버지 산소에 절하게 했습니다.

“우린 조상님들 돈 못 벌었다고 나도 은근히 불평했는데 이제 우리도 부자된 것은 조상님 덕이야.”

영식이 아버지는 조상님에게 감사했습니다.

영식이 아버지는 다음날부터 시내에 나가 집을 샀습니다.

멋진 때문에 영식이 아버지 문패도 붙였습니다.

방안에 가구를 들여왔습니다. 몇백만원짜리 었습니다. 영식이 어머니는 밤에 잠도 안자고 가구를 어루만졌습니다.

산마을에서 쓰던 콘로는 쓰레기 차에 실려 보냈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을 놓았습니다.

---

영식이 방에는 침대를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에 영식이네 식구는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도리어 불편하기까지 했습니다.

전에는 별로 찾아오지 않던 사람들이 영식이네가 부자가 된 뒤로 매일같이 찾아 왔습니다.

“아이구, 사촌형님, 이사오면서 좀 알리지 슬쩍 오는게 어디 있어요. 더 부자되 라고, 거품처럼 늘어나라고 하이타이를 사 왔어요.”

영식이가 알기엔 언젠가 한번 다녀갔던 분이 반가이 찾아 주었습니다.

영식이네는 매일 손님을 치루느라 잔치집 같았습니다.

“아니, 이사람, 정말 사람 팔자 모르겠구먼, 그 땅이 금값이 될 줄이야. 우리도 그냥저냥 거기 얹드려 살았더라면 이런 세상을 만나는걸.”

영식이네랑 이웃해서 살던 혁수네 아버지가 배가 아파서 하는 눈치였습니다.

“자넨 조상님 덕 받았네, 거길 떠나자니까 아버님 산소 옆을 떠날 수 없다고 그랬지. 그래서 조상님이 돌본거야.”

영식이 아버지는 혁수네가 이사 가던날이 어렴풋하게 생각났습니다. 그때 이웃 하여 같이 살자고 했지만 갈보듯 버리고 떠난 혁수네 아버지가 이젠 영식이 아버지에게 고개를 굽힌듯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영식에도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늘 산동네 촌놈 소리를 들었지만 이젠 부잣집 아이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생각 했습니다.

“메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영식이 할아버지 산소를 빨리 옮겨 달라는 아파트 회사의 독촉이었습니다.

영식이네 아버지는 산소를 파는 사람을 사서 묘를 샀습니다.

영식이는 아직 한번도 묘를 파는 구경을 못했기 때문에 쫓아가 봤습니다.

삼으로 할아버지 산소의 봉분을 파내었습니다.

구덩이를 점점 깊게 파들어 갔습니다. 썩은 나무토막이 나왔습니다. 얼마를 더 파자 붉은 비단에 흰 글씨를 쓴 영식이 할아버지 이름이 어렴풋이 나타났습니다.

그 비단천을 걷어내고 꺼렇게 된 관을 파냈습니다. 관은 나무라서 보기 흉하게 약간 썩어 있었습니다. 관을 덮은 관대기를 뜯어 냈습니다. 관 안에는 마치 누에

---

고치 실로 엮은듯 실이 얽혀 있었습니다.

순삼베로 시체를 묶은 것이 아니고 나이롱실을 섞어서 짠 삼베로 시체를 묶었기 때문에 삼베는 다 썩고 나이롱실만 남아 누에 번데기같이 실로 얼킨 속에 유골이 나왔습니다.

영식은 죽은 사람의 뼈를 처음보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과학실에서 봤던 것과 같았습니다.

그 뼈가 할아버지의 뼈라고 생각하니 할아버지의 금니가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의 해골에는 이를 악물은 이빨과 그중에 금빛이 보였습니다.

영식은 할아버지가 웃으시던 얼굴을 기억해 냈습니다.

영식이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유골을 문종이 위에 퍼놓고 칩추뼈 속에 문종이로 새끼를 꼬아 꿰었습니다.

영식이 할아버지의 뼈는 문종이에 쌓여서 상자에 담겨졌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서 여기 영생하여야 하는데 불효자가 아버님 집을 팔았습니다. 아버님도 조상님들이 한테 계시는 아파트로 이사하시지요.”

영식이 아버지는 조상님 산을 한 곳에 보아 가족 공동묘지를 만들었습니다.

영식이 할아버지네 산소에는 비석도 해 세우고 향나무도 심고 때도 잘 심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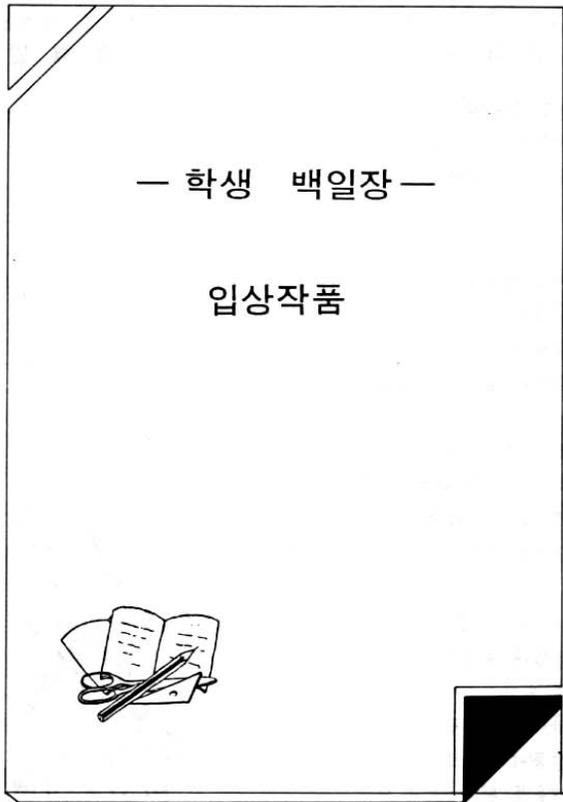
영식이 할아버지 산소가 있었고, 영식이네가 살던 터밭에 모두가 우성아파트 회사에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

임교순(1938. 6. 25 황성군 안흥면 소사리)

- 57년 춘천사범학교 졸업
- 71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당선으로 등단
- 72년 강원도 아동문학회장 역임
- 74년 강원도 문학상 수상
- 75년 모범공무원 표창(대한민국정부)
- 83년 강소천 아동문학상 수상
- 84년 강원도 문학상 수상
- 저서 : 박씨전, 텃밭에 감자꽃, 김소위와 노루, 방울꽃
- 현재 : 한국문인협회 원주지부장.

학 생 문 예



## 봄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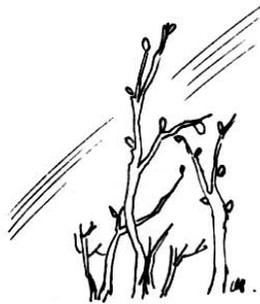
원성국민학교 4년  
박혜빈

눈도 없는데  
어떻게  
개나리 노랗게  
몽우리 진 줄 알았을까.

귀도 없는데  
어떻게  
개울가에 얼음이  
물되어 흐르는줄 알았을까.

요리 조리 기웃거리다가  
툭 치고 달아나는 바람  
개나리는 노랗게  
웃기만 한다.

얼음장 밀 물고기  
잡겠나 보다가  
툭 치고  
달아나는 바람  
얼음이 사르르  
개울물 된다.



## 봄바람

황성국민학교 5년  
강 영 지

봄바람이  
입김을  
훅  
분 곳은

새싹이  
파릇파릇  
돌아나요.

봄바람이  
입김을  
훅  
분 곳은

가물가물  
아지랭이  
피어 올라요.

봄바람이  
입김을  
훅  
분 곳은

나비들이  
팔랑팔랑  
날아와  
춤을 추어요.

## 봄바람

용문국민학교 5년  
박 설 화

살랑살랑  
봄바람이 몰래  
하늘의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

살랑살랑  
봄바람이 진달래를  
깨우는 소리

진달래가  
살며시 눈을 뜬다.

살랑살랑  
봄바람이 개나리를  
깨우는 소리

개나리도  
눈을 비비며  
일어난다.

“이제 어디로 갈까?”

봄바람은  
보드라운  
버들강아지 위에  
앉아 쉬고 있다.

## 봄바람



우천국민학교 6년  
박지연

녹색 모자 눌러쓴  
봄바람  
이산저산 넘어 봄소식 전하네.

높고 높은 담넘어  
영희네 꽃밭.  
노란 드레스 민들레, 빨간불 진달래

민들레와 진달래  
얼굴없는 봄바람에게 반해  
노란물, 빨간물 화장하네.

다리 없는 봄바람  
봄소식만 전하고, 앉지 못하네.

몽우리 피우는 살구나무에 걸려  
춤추는 아지랑이와  
여름이 올 때까지 친구하네.

## 봄바람

참립국민학교 6년  
김 영 주

친구들아 이리와서  
봄바람과 인사하자.

그동안 꼭꼭 숨었던  
봄바람이 찾아 왔으니  
우리 즐겁게 봄맞이 하자꾸나.

모두 기지개를 펴라.  
싱그러운 봄 내음을  
마음껏 들이마시자.

친구들아 우리들도  
여기저기에 봄소식을  
알리러 가자꾸나.

봄바람과 함께.

## 봄바람

황성국민학교 6년  
이 규 용

이쪽에서 사랑  
저쪽에서 사랑  
따뜻한 봄바람.

봄이 왔다. 사랑  
겨울이 갔다. 사랑  
따뜻한 봄바람.

## 민들레

대동여중 3년  
이 화 순

언제나 묵묵히  
지켜온 그 한자리.  
오늘도 그 한자리를 지키며  
외로이 미소 짓는다.

눈보라, 비바람을 헤쳐가며  
고요한  
넓다란 들판위에서

날개 돋는 꿈을 꾸면서  
희망을 안고  
오늘도 지킨다.  
그 한자리를 ...

## 초승달



서원중학교 3년  
이 은 자

머언 하늘  
마른 나뭇가지 사이로  
부끄러운 듯  
살며시 얼굴 내민 당신.

오늘은 웬지  
초라해진 당신의 모습  
나도 함께  
초라해지게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보내 주시던  
그 미소는  
오늘도 잊지 않으셨군요.

추운 밤  
당신의 미소에 젖은 난  
어머니 품에 안긴 듯  
따뜻하기만 합니다.

## 민들레



우천중학교 3년  
홍 정 훈

어느 시인의 조용한 노래가  
흐르는 이 늦은 봄.

한들한들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봄 바람 사이로  
민들레가 수줍은 듯이  
아름다운 고개를 들었다.

살며시 살며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민들레의 몸짓이  
전해져 오는 빛살 너머로 보인다.

따스한 햇볕도 잠든  
이 늦은 봄 날에  
민들레는 모을래 모을래  
아무도 모르게 꿈을 키운다.

## 꽃씨의 거듭남



횡성여고 2년  
장 지 혜

아, 저기  
보잘것 없는 작은 너  
살며시  
폭신한 땅 위에 스며든다.

조금씩 조금씩  
너의 모습이  
어둠 속에 감추어 진다.

끝없는 기다림에 엉켜  
녹아짐과 깨어짐으로 인하여  
아픔 속에 잠이 드는 너  
밤 중의 고요함이 찾아든다.

땅이 갈라지는 소리  
감추었던 너  
새벽 닭 울 때  
이슬이 되었구나

파아란 꿈을 여는  
너의 입술에서  
진한 레몬 쥬스의  
달콤함이 덩군다.

촉촉한 너의 냄새  
꽃내음  
그로 인해  
넉넉한 미소가 흘러온다.

##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청일국교 6학년  
공 분 선

간밤에 잠아본 어머니 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비록 마디도 굵고 거칠긴 했지만 나에게 돌도없이 고운손이다. 처녀때 어머니 얼굴은 무척 아름다웠는데 이제는 눈가에 잔주름이 잡혔다.

나를 위해 쏟았던 걱정이 고랑이 되고 나를 위해 흘렸던 땀 한 방울이 다시 고랑이 되고 그위에 나의 아픔이 흐른다. 그 고생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기에 거친 손하나 잡힌 주름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더없이 아름답고 사랑스런것이다.

사람들은 도시로 도시로 떠나버려도 우리 부모님은 묵묵히 땅을 지키신다.

밭으로 어머니의 손에의해 끌어 파일때 어머니의 얼굴에 서서히 곱이 잡힌다. 도시 사람은 농사 일이 쉽다고 생각 한다. 모심고 농약치고 놔둔다음 가을 되면 거두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은 아니다. 팽벌에 나가 김매고 벌레도 잡고 물갈아다 주고 약도뿌리고 갖은 고생으로 정성을 쏟지만 여기선 200~300원밖에 되지 않는 농산물이 도시에서는 1,200원씩이나 된다는 것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중간상인들이 증오스럽고 미워졌다. 그들이 꼭 도둑이나 사기꾼 같이 느껴졌다.

그들이 다 고생한 나의 부모님의 기쁨을 그들이 가로채 갔다. 고생한 만큼 받아야하는 댓가를 그들이 가로채 간것이다. 나의 어머니에 숨겨진 한숨과 눈물을 나는 어려서부터 알고 자랐다.

그렇기에 나의 어머니를 이해 할 수있고,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누군가 날더러 신사임당 보다 더 존경 받을 만하고 더 훌륭한 여성이 또 있냐고 한다면 나의 어머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난 어머니 옆에 누워 눈을 감았다. 엄마의 품은 아주 따뜻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미소가 아지랑이를 타고 피어 오르는 것 같다.

## 우리 엄마

성남국교 4학년  
허 선 화

“엄마”

대문을 들어서며 외쳤지만 “선화구나” 하면서 반겨주실 엄마의 대답이 들리지 않았다.

나는 금방 기운이 하나도 없어지고 갑자기 배가 고파졌다.

엄마는 아직 회사에서 돌아오시지 않았나 보다.

조금후에 헐레벌떡 들어오시는 엄마를 보니 눈물이 나올것 같았다.

“엄마, 왜 나보다 늦게 오는 거야?”

내가 투정을 부리니까 엄마는 나를 안아주며 어쩔줄 모르셨다.

“미안하다. 선화야”

“회사일이 바빠서 그랬어”

“금방 저녁 지어줄게, 배고프지?”

“지금은 참아라”

엄마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서 부엌으로 향하셨다.

‘엄마는 얼마나 피곤하고 배가 고프실까?’

고생하시는 엄마가 불쌍하시다.

아빠는 엄마에게 회사에 다니지 말고 집안일이나 하라고 하지만 엄마는 이제 애들도 컸으니 회사에 다니면 건강에도 좋고 부지런해 진다고 웃으신다. 하지만 나는 다 안다. 집안 식구들이 너무 많아 돈쓸일이 많다는 얘기를 어른들이 하시는걸 들었다. 그래서 엄마 월급으로 우리 학원비도 주시고, 할머니 용돈도 드리고 그런다. 다음달에는 피아노도 사 주실 계획이시란다.

엄마한테 이 다음에는 내가 엄마, 아빠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의 보답을 꼭 하겠다고 하니깐 엄마는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언제나 가족에게 웃음으로 맞아주시는 엄마가 참 좋다.

## 우리 엄마



덕천국교 6학년  
손 은 경

우리 식구는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우리를 키워 주시느라 고생하시는 아빠, 엄마 또, 오빠들과 나 이렇게 일곱식구이다.

우리집의 가장이신 아빠는 다리가 편찮으셔서 다른집 아버지들 처럼 힘든 일은 잘하시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여름에도 땀을 뻘뻘흘리시며 일하시는 모습을 볼때 아빠께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간절히 든다.

아버지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더욱더 고생이 많으시다.

지난 겨울방학때의 일이다.

지게질을 못하시는 아빠대신 우리 엄마는 지게질을 하셔야만 한다.

나는 낫을들고 엄마는 지게를 지시고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다.

연탄도 피우지만 소의 여물을 풀이려면 나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나무와 낙엽을 주워 모았다.

‘열심히 일을 하여야 엄마가 조금이라도 힘이 덜드시겠지’

하는 생각에 힘든 표정을 안나타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힘들어 하시며 땀을 닦으시는 엄마에게

“엄마, 힘드시죠? 허리 안아프세요?”

이렇게 여쭙어 보자 엄마는,

“괜찮아, 네가 힘들겠구나!”

이러시면서 오히려 나를 걱정 하셨다. 나는 이런 우리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웠다.

어디선가 ‘저벅 저벅’ 발자국 소리가 들렸었다.

이웃집 은영이네 아버지셨다.

그아저씨도 나무를 해서 가져 가시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우리가 한 나무보다 더 많은 나무를 지고 가시고 계셨다.

---

'우리 아빠도 저렇게 나무를 하시면 우리 엄마가 편안하실 텐데'  
하지만, 몸이 불편하시면서도 언제나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시는 아빠가 나는  
자랑스러웠다. 더구나 우리 엄마가 있으니 걱정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경아 이제 가자"

"네"

엄마가 집에 가자고 하셨다.

무거운 지게를 지고 힘드시면서도 참고 가시는 우리 엄마를 보니 내가 얼른 지게  
를 가지고 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아빠는 봄에 고추대로 쓸 나무를 다듬고 계셨다.

나는 지게를 지고 계시는 우리 엄마와 아빠를 바라보았다.

언제나 다정하신 우리 엄마와 아빠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다.

우리 가정을 위해 열심히 열심히 일하시는 엄마에게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드  
리며 꼭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 그 깊은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다짐  
하였다.



## 우리 엄마



우천국교 6학년  
강 영 순

엄마는 언니들과 나 그리고 내동생을 낳아주시고 키워 주셨다. 언니들을 낳을 때는 의료시설도 좋지 못했는데 우리 다섯 형제를 낳으셨다. 그리고 어려움에서 이겨내시고 참으신다. 나는 이런 환경속에서 자라났다.

이렇게 나에게 소중한 엄마는 언제나 아름답다. 외모의 아름다움 보다는 열심히 일하시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답다. 엄마는 일을 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정신을 팔지 않고 오직 일에만 신경을 쓰신다.

언젠가 내가 엄마에게

“힘들지 않아.”

하고 물었을때

“괜찮아 방에 들어가 있어.”

하고 다정하게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몇일 전에는 한달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우리가 찾아 갈 때마다 얼마나 울으셨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던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몽클해 진다.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리에 떠 오른다. 우리 동네에 엄마가 없는 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엄마가 자기를 낳다가 돌아 가셨는데 모른다는듯 무력무력 자라는 그 아이. 언젠는 알미웠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불쌍하다.

내가 “너 엄마 어디 가셨는지 알아”

하고 물었을때

“저기 하늘에 가셨어.”

하고 대답했다. 그때 내가 물어보지말아야 했었는데 그 아이에게 죄를 지은것 같다.

---

할머니가 돌보아 주시지만 할머니도 지치신 모습이다. 이렇게 엄마가 없다는 것은 불행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보면 나도 매우 행복하다. 몇번씩이나 아프시다던 엄마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느정도 걱정이 된다. 너무 무리한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내가 도와 준다는 것은 심부름밖에 없다. 그것도 하나, 둘밖에 시키지 않으시는 엄마의 심부름을 짜증내며 겨우 해오는 나, 아빠는 엄마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꼭 하려고 해서 병이 났던 것이라고 하시지만 나와 내 동생, 그리고 언니들이 엄마를 도와주지 않아서 엄마가 아프셨던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요즘 엄마는 기분이 아주 좋으신것 같다. 언제나 싱글벙글이시다.

언니들이 별로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를 해도 엄마는 환하게 웃으신다. 그러는 엄마모습을 보면 나도 저절로 웃게된다. 그러면서 가족 분위기도 환해진다. 이렇게 즐거우면서도

‘엄마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셨을까?’

하는 이상한 생각도 든다.

오늘도 힘없이 장을 담그시는 엄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중에 해도 되니까 조금 조금씩 해”

이런 언니들의 말을 듣고도 중지하지 않는 엄마, 그리고 보면 우리 엄마도 고집이 아주 세신것 같다. 또 한편은 다정하시고 인정이 많으신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13살이 되기까지 잘 자라고 엄마를 사랑하고 있는것 같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도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엄마 아빠를 잘 모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해내야 겠다. 이것이 잘 지켜질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데까지 노력하겠다. 그러면 엄마도 오래 오래 사실수 있을 것이다.

“엄마 언제나 아름답고 인정이 많으신 엄마, 오래오래 많이 사세요.”

## 우리 엄마

횡성국교 6학년  
이 석 정

'우리 엄마는 날 참 사랑하지. 나도 엄마를 너무나 사랑해. 언제나 느끼지 엄마의 사랑을…….'

2년 전쯤의 일이다.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우리 엄마의 전화였다.

선생님께서는 받아보시고는 수화기를 나에게 넘겨 주셨다.

어머니께서는

"엄마는 급한 볼 일이 갑자기 생겼으니 피아노 치고 먼저 갈 수 있겠니?"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억지로 눈물이 나음을 참으며,

"응"

하고 대답했다.

오늘 아침부터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다.

나는

'병이 잘 걸렸구나. 병 덕분에 엄마랑 같이 다니기도 하고 말이야.'

하고 생각 했는데 그 생각이 맞아 떨어지지 않았으니 눈물이 와락 쏟아지려 했다.

선생님께서 수화기를 나에게 넘겨 주실 때에는 같이 가려니까 기다리라는 전화인 줄 았았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가라는 전화였으니 울지 않는 것이 우는 것 보다 더 바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선생님께서

"엄마가 뭐라 하시니?"

하고 나에게 물어보셨다.

나는

“혼자 오라고 하셨어요.”

라고 힘없이 말했다. 그 날은 피아노 치기도 재미없었다. 다 치고 나서 문 밖을 나오려니까 힘이 하나도 없었다. 학원에서 집까지 30분 밖에 안 걸리는데 오늘은 1시간도 넘게 걸릴 것 같았다.

그런데 나에게 제일먼저 눈에떠는 것이 있었다. 저만큼 막 달려 오시는 우리 엄마의 모습이었다.

엄마는 달려 오셔서 내 가방을 받아드시고는

“내가 내 딸을 두고 어딜 가겠니? 머리가 뜨겁구나.”

하고 말씀하실때 난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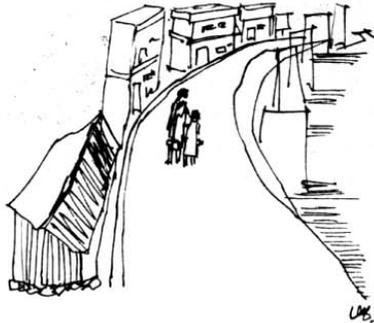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고 말했다.

겉으로 말하면 눈물이 나올것 같아서…

머리가 맑아지는 듯 했다. 엄마의 손이 내 이마에 닿아서 일까?

역시 엄마손은 약손인가 보다.



## 우리 엄마

황성국교 6학년  
윤복희

난 태어날때 엄마의 미움을 받고 태어났다. 엄마는 내가 태어났을 때 아들인줄 알고 살펴보니 딸이었다. 엄마는 내가 둘째 딸이어서 발로 세계 밟았다. 저번에 내 남동생이 엄마에게

“엄마 내 돌사진하고 백일사진 어딴어?”

하고 물었다. 그러자 엄마가 선뜻내주셨다. 그래서 나도 엄마께 동생과 똑같이 말하였다.

그런데 엄마는 아무말씀이 없었다.

동생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누나 사진은 없어 그것도 몰랐어?”

하고 말했다. 나는 갑자기 눈물이 왕창쏟아졌다.

그리고 엄마네 방문을 ‘퐁’닫고 나와서 막 울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울었다. 난 그때 둘째딸로 태어난게 뭐가 잘못이냐고 생각했다.

조금있다가 엄마가 나오셔서 나를 감싸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엄마도 지금 후회하고 있어”

하며 나의등을 토닥거려 주셨다.

그때 나의 마음은 참뿌듯 했다.

다른 때는 몰랐는데 엄마의 가슴은 너무나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깨달았다. 엄마가 나에게 해주시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엄마에게 불만인 것만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엄마께 잘해드려 야지!”

## 희망의 새싹.

우천중학교 2학년  
박복녀

“엄마, 아빠 빨리 나와보세요 빨리요.”

아침부터 뒷뜰에서 서성이던 동호가 무슨 일인지 집안을 떠들썩하게 만든다.

“아니! 무슨 일이니?”

엄마가 아직도 조금씩 다리를 절뚝하는 아빠를 부축하며 나오시며 걱정된 얼굴로 동호를 바라보신다.

“짜 이것봐요.”

동호는 몸으로 가리고 있던곳을 살짝 비키며 이제 막 나오는 초록색 새싹을 가리키며 방긋 웃었다.

“아니 나왔구나 나왔어!.”

아빠도 기쁘신지 싱글벙글 이시다.

“우리 동호가 가꾼 보람이 있는걸.”

엄마도 기뻐하시며 동호를 칭찬해 주신다. 동호는 너무너무 기쁘다. 열집 미애의 포도나무에는 사흘 전부터 초롱초롱한 빛을 내며 새싹이 돋아나 있었는데 웬일인지 동호네는 새싹이 나오지 않았다. 또 실패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새싹이 돋아난 것이다.

동호는 작년에도 작은 나무 한 그루를 뒷뜰 한 가장자리에 심었었다. 그해에 채소씨와 비닐을 사러 시내에 나갔던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 1년동안 오른쪽 다리를 못쓰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엄마는 무척 바빠졌고 동호는 엄마의 일을 돕기 위해 일찍 돌아오곤 했다. 여름이 가까워지자 할 일이 많아졌고 동호는 과제를 하지 않거나 수업시간에 잠이 들곤해 성적은 자꾸 뒤떨어지기 시작했다. 어느날 동호는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저녁 늦게야 집으로 돌아왔다. 7시 30분이었다. 엄마가 안계셨다. 집근처의 논밭에도 없었다. 동호는 고개 너머에 있는 밭을 향해 뛰었다. 그 곳에서 엄마가 큰돌을 치우냐고 땀을 뻘뻘 흘리고 계셨다.

“엄마”

“응 동호니? 너오면 같이 치우려고 했는데 오늘 학교수업이 늦게 끝났나보구나 힘들텐데 그냥 집에 있지 왜 왔니?”

“응 그 그냥.”

동호는 얼버무렸다. 웬지 축구를 하다가 왔다고 말하기가 쑥스러웠다.

“엄마 제가 할게요. 제가 엄마보다 힘이 더 세요 보세요 !.”

동호는 조금 굵직한 나무를 ‘딱’하고 잘랐다.

“우리 동호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엄마가 기분 좋게 웃으셨다.

고개마루를 내려오며 동호는 슬며시 엄마의 손을 잡았다. 순간 놀랐다. 엄마의 손은 상처투성이였다. 동호의 눈에는 어느새 작은 물방울이 생겼다. 엄마는 싱긋 웃어 주시고는 동호의 손을 꼭 쥐셨다. 동호도 꼭, 꼭 쥐었다. 그 뒤부터 동호는 일찍 학교에서 돌아왔고 엄마와 노력의 댓가를 거두어 들었다. 그러나 아빠와 할 때보다 양이 적은 것 같았다.

그 뒤 다시 봄이 되고 작년에 심은 포도나무의 실패를 생각하고 다시 심은 것이다. 엄마는 식사준비로 들어가시고 아빠와 둘만 남았다. 아빠는 동호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이야기 하셨다.

“동호야 이제 동호도 공부해야지? 네가 아빠대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 아빠다리도 낳았으니 동호는 동호가 할 일을 해야겠지? 꿈꿨던 추위를 이기고 이렇게 예쁜 새싹을 틔운 나무처럼 우리도 알찬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자 응?”

“네 아빠 !”

동호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동호의 뒤에 서 있는 엄마와 새싹도 마음속으로 동호를 격려해 준다.

## 고향의 봄



둔내중학교 2학년  
김정하

나에게는 봄이란 계절이 색다르게 느껴진다.  
모든 사람들이 시시한 이야기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있어선 가장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인 어릴적의 추억때문이다.  
내가 국민학교 저학년일 때 우리 동네에는 정환이라는 언니와 5촌 고모가 살고 있었다.  
정환이 언니와 고모는 나보다 4살 위였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 셋은 늘 함께 놀았다.  
특히 자주 하며 놀던 것이 소꿉놀이였다.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는 봄이면 정환언니와 고모, 나, 이렇게 셋은 소꿉놀이 도구를 모두 들고 산으로 올라 갔다.  
그리고는 적당한 자리에서 소꿉놀이를 했다.  
“언니, 언니는 엄마 해, 그리고 고모는 아빠 해, 나는 애기 할게.”  
나이가 제일 어린 나는 늘 애기를 하려 했다. 그러자 고모가 불평을 했다.  
“이번엔 나 아빠 안할래. 난 늘 아빠잖아? 이러다가는 내가 진짜 남자가 되고 말꺼야.”  
“그래, 이번엔 정하가 엄마 해, 내가 아빠 할게. 그리고 복득이 너는 애기해.”  
정환언니가 고모의 말에 맞장구를 쳤기 때문에 난 조금 화가 나기도 했고 늘 내 고집 대로만 하려 한 것이 부끄럽기도 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언니.”  
하는 수 없이 정환 언니 말대로 하기로 했다.  
“그럼 우선 장을 봐 와야지요.”  
“허허, 그러세요.”

나이에 맞지 않게 정환 언니와 복득이 고모는 소꿉놀이를 좋아했다. 그것이 그때의 나에게서는 참으로 다행이었다.

"자, 이걸 진달래 무침이고, 이걸 진달래 튀김, 이걸 진달래국이란단. 애야, 꼭꼭 잘 씹어 먹어."

"얹남 맛있다. 엄마 너무 맛있어."

먹는 시늉을 하며 재롱스런 말을 하는 고모를 생각해보면 너무 우습다. 하지만 그 때만 해도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엄마 더 주세요."

한참을 놀다 보면 해는 어느새 고개를 숙이고 만다.

"정하야 밥 먹어야지."

엄마는 늘 우리가 노는 산으로 나를 찾으러 오시곤 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해 겨울 정환 언니네는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정환 언니는

"정하야 너무 아쉽구나."

하며 탬버린과 무용할 때 쓰는 쪽두리를 선물로 주었다.

"언니,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와."

"안돼. 너무 멀어. 차를 몇 번씩이나 갈아타야 하는 걸 그리고 차비가 5,000원이 나 들어."

나는 말이 안 나왔다. 그때 내게 있어선 5,000원이란 돈이 너무도 큰 돈이었기 때문이다.

그 뒤 정환 언니를 두번 다시 보지 못했다. 복득이 고모도 이젠 직장에 나가게 되었고 우리 집도 옆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지난 한식날 할아버지 산소에 가다가 정환 언니, 복득이 고모와 함께 소꿉놀이 하던 곳을 지나게 되었다. 너무도 오랫동안 보지 않아서인지 낯설게만 느껴졌다.

지금도 봄이 되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핀 산에서 소꿉놀이에 열중했던 어린 시절이 고향의 정다움과 함께 그리워지곤 한다.

## 고향의 봄



공근중학교 2학년  
오 영 숙

언제나 그랬듯이 난 오늘도 늦잠을 잤다. 부시시 눈을 떴을 때 창문틈 사이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새들어와 나의 얼굴을 찌푸리게 했다.

나는 얼른 손으로 빛를 가렸다.

밖으로 나왔다. 상쾌한 바람이 나의 머리카락을 살짝 건드리더니 이내 나의 잠을 완전히 깨워 주었다. 집 앞의 커다란 느티나무 꼭대기에서는 참새 두마리가 다정하게 앉아 가지를 흔들면서 지저귀니 아침의 공기가 더욱 맑아지는 것 같았다.

따뜻한 햇살은 여전히 내리쬐고 있었고 앞 개울의 물소리마저 나를 환상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고향의 소리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식사 시간에 아버지께서는 가족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은 식구들이 모두 담배 포트를 좀 해야 되겠다.”

평소에 농사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나는 농사일에 대해서 약간은 궁금했고 모처럼 부모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따라 나섰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그동안 키워온 담배싹들이 한창 푸른빛을 띠며 피어오르고 있었다. 손에도 잘 잡히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이 담배싹들이 하나하나 옮겨 심을 때마다 완연한 봄임을 연상케 했다.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실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밖으로 나오면 부는 바람에 땀이 모두 식어버린다.

나무껍질 사이로는 붉은이 뽕죽히 얼굴을 내밀었고 물속의 모래알이 빛에 의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더욱 깨끗해 보였다.

겨울에 험벗었던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싹이 돌아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난 자연의 법칙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신기한 것인가에 대해 한번더 생각해 본다.

엄마께서 포트를 두 개를 해놓으실 때 난 한 개도 못하고 있다고 꾸중을 들었다. 그래서 열심히 했다. 더운느낌이 드니까 짜증도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밖으

로 나갔다. 푸른색을 띤 풀들이 많이 돌아 있었다. 역시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다.

포트를 모두 끌내고 푸룽푸룽 돌아오른 이름모를 풀뿌리를 밟으며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오는 도중 잠시 고향의 봄 노래의 가사가 생각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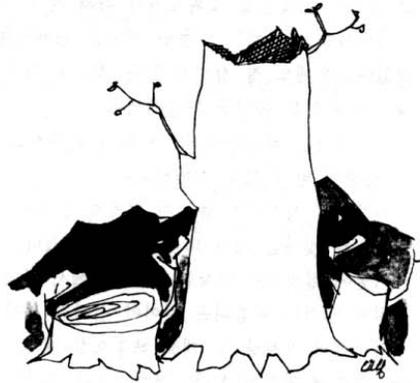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아스팔트가 아닌 흙을 만지고 밟으면서 흙과 더불어 봄이면 봄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소중한 행복인 것이라 생각한다.

한 해를 맞이하는 봄!

정말 아름다운 첫번째 계절.

문득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것 같다.



## 우리 마을



횡성여고 3학년  
진 경 미

이곳에 들른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학교 다니느라 바쁜 까닭도 있었지만, 웬지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나를 어렵게 만드신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산 소주 1병과 종이컵 하나를 들고 이곳을 찾긴 했지만, 웬지 서먹하고 해서 선뜻 절을 하고 잔을 붓기가 어렵다.

아버지 묘를 이곳에 쓰고 가족들과 함께 처음 찾았을 땐 마음 한구석이 허해지도록 슬펐었다. 눈이 하얗게 쌓여 지나는 사람 하나 없었고 찬바람에 눈보라만이 이는 곳에서 우리들은 돛자리 하나와 구깃구깃해진 손수건을 든 채였다. 어머니께서는 그동안의 고생도 잊으셨는지 비석 위의 눈을 쓰는 척 하시며 코끝이 빨개지도록 우셨었다.

며칠 후 그런 어머니께서 동네 어귀 나무아래 힘없이 앉아계신 것을 차에서 내리다 문득 보았을 땐 난 이 동네가 무척이나 싫었다. 내 할아버지가 나시고 내 아버지가 묻히시고 내가 아직까지 살고 있는 오랜 고향이었지만, 내 마음이 슬퍼서였을까. 마을길 옆으로 촘촘히 쪽 늘어선 아카시아에서 하얗게 피어 매달린 그것들이 그날의 슬펐던 눈처럼만 보였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게 오랜 세월속에서 아픈 상처는 치료가 되기 마련인가 보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 마을은 나에게 뭐라 말할 수 없는 풋풋한 정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힘드신 농사일을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 주시고 흐르는 세월속에서 우리들은 새 삶에 적응 하느라 바쁜 나날들을 보냈다. 아버지는 이제 내 기억속에서 더 이상 슬픈 사람도 아니었다. 내 마음속 한구석을 꼭꼭 눌러 자리잡고 계시니까 말이다.

하늘은 파랗다. 앞산에 밤송이도 벌어졌고 대추도 빨갛고 여기저기서 풀썩풀썩 뛰는 메뚜기도 있었다.

이렇게 몇해가 지났을 때 우리 마을이 물에 잠긴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

---

동네는 술렁거렸지만 우리 마을에 아직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얼마 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여기저기를 재고는 빨간 칠을 한 나무를 꽃아놓았다. TV 뉴스에서도 거의 매일 방송이 되다시피 했다. 사람들은 농사걱정에 이곳을 떠나 살아갈 걱정까지 해야 했다.

국민학교 몇학년때던가 배운 도덕책에서 어떤 할아버지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 시며 흙 한줌을 가지고 가셨다는 내용을 배웠다. 그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할아버지의 마을을 알 것 같다.

오늘 이곳을 찾은 것도 마음이 서글퍼서이다. 이곳이 물에 잠기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몇해째 이곳에 묻혀 계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종이 컵이 저쪽으로 굴러간 것도 몰랐다.

지난 생각을 좀 했을 뿐인데 해는 벌써 빨간 얼굴을 하고 삐죽삐죽한 소나무 산을 넘어가고 있었다. 출렁이는 소주병을 들고 가파른 산언덕을 숨차게 뛰어 내려왔다.

진달래며 칠썩이며 성냥꽃까지도 벌써 파랗게 물을 먹고 있었다.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길을 걷고 있는데 길 저쪽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다.

“난 안가. 꼭!”

“난 공동묘지엔 안 갈꺼야. 나 죽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신 저산에 묻어 줘.”

“내 산 두고 왜 거길가”

“애 난 안 갈란다. 흐흐”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두분이 외로이 사시는 옆집 노인네였다. 물에 잠긴다는 소식 이후에 가끔씩 저런 모습을 보게되는 내마음은 찬바람에 눈보라 일었던 그날 처럼 서글프기만 했다.

## 어머니



횡성여고 1학년  
박 순 미

새벽이 바삭 다가오고 있음이 느껴진다.  
감아내린 두 눈도 새벽의 빛을 조금씩 조금씩 실감해가며 단잠을 꾸고 있다.  
무엇인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설새없이 반복됨에 나도 모르게 애써 줄린 눈을  
치켜며 보았다.  
'엄마가 벌써 일어나셨구나.'  
무의식 중이지만 그렇게 느꼈다.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으므로 해서...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 책상 모퉁이에 기대어 앉았다. 회미한 방안이 너무도 고  
요하게 보인다.  
금새 눈뜨고 난후의 허탈감, 그 무의식의 순간속에서 내 어머니를 더욱더 절실  
히 느끼게 된다.  
어머니!  
언제나 잔잔한 눈과 애절한 눈빛으로 우리들을 길러주신 분. !  
아버지의 조용하고 은닉된 듯한 사랑과는 대비적으로 노골적이고 보다 강한 모  
습으로 사랑을 주시는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그 누구의 도움 없이 당신 스스로의 손으  
로 조반을 지으시고 저희를 위한 무언의 기도를 올리시는데...  
8남매라는 많은 아이들을 벌써 둘이나 출가 시키시고 이제 이날까지 얼마나 속  
을 태우셨을까?  
특하면 짜증이나 내고 풍족하지 못한 살림에 누만 끼친 것은 아닌지...  
가난했던 시절 40년대에 태어나셔서 이제 인생의 50고개를 넘으시려는 어머니가  
그간 모든 행복과 기쁨의 시간에 과연 내가 공헌한 것이 있을 지 의문이다.  
아직까지 어머니 곁에서 잠들기를 좋아하는 나, 피곤하신 탓에 온통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드시면 금새 잠이 드시는 어머니 옆에서 가끔씩 잡아 보게 되는

당신의 손이. 그 손이 주는 느낌이 얼마나 정곡을 찌르는지 모른다.  
거칠어진 손.

손톱이 뭉툭해지고 물마를 날이 없어 터진기가 있는 손등이 못내 안스러운데...  
정작 어머니의 손에서 느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머니의 손에는 정성이 담겨 있었다.

메마르고 거칠은 그 손이 움직일 때마다 사랑이 보인다.

그 손이 나로 하여금 수많은 행복을 주고 위안을 준 손인데 눈에 보이는 것은 그  
것이 아닌 험난하고 고생스럽던 역경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모순  
인가?

사랑을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친 아름답고 고귀한 손은 어머니, 당신의 고난과  
노력에 허물어져 버렸다.

아! 어머니!

이번에 연합고사를 치르고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소식  
을 듣고 나서서는 전차의 그 거칠은 손으로 내 두 손을 마주 잡아주시며 하신 말  
씀!

“고마워, 수고했다.”

“고작 고거야?”

“그래, 그래, 너무 고맙다.”

아아!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그 짧은 낱말의 말에 담겨있는 당신의 벅차오르  
는 행복감을, 안도감을, 뿌듯함을...

이렇게 어머니는 내 작은 선행에도 마냥 즐거워하시고 만족해하시는데 나는 얼  
마나 나로서의 본분인 공부를 등한시 했는가 반문해 본다.

어머니는 나에게 매를 들어 공부를 강요하신 적은 없지만 알아서 잘하리라 믿는  
다. 그 믿는다는 말로 나를 바로잡아 주셨다.

언제였던가? 9년전인가? 6년전이었는가?. 이젠 기억속에서조차 가물해지는 그  
런 추억 속에서 어머니, 당신은 나를 감동시키셨는데...

병원에서 천식이 심해서 입원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였으리라.

“걱정마라, 입원비야 없을라고...”

“엄마, 나 하나도 안 아픈데 입원 안 하면 안돼?”

“무슨 소리니? 돈이 얼마가 들어도 빨리 고쳐서 아픈 소리 안 하는게 낫아.”

---

아! 그러나 그 밤에 나는 듣고야 말은 것을...  
그렇다 밤새 아버지와 어머니는 입원비 문제를 토론하셨다.  
그때 가슴을 울리던 그 찡한 느낌은 무엇이었을까?  
나도 모르게 시큰해지던 콧잔등과 그 시커먼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당신네의  
사랑은 무어라 이름지을 수 있을까?  
이제 이만큼 나아지고 이만큼 성숙됨을 느끼며 새벽의 어둠을 응시한다.  
적막함...  
“뭐하니? 일어났으면 부지런히 씻어야지,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  
다른 날 같으면 별의미 없이 들었을 엄마의 책망섞인 말씀이 오늘은 모닝커피마  
냥 온은한 향으로 가슴에 와 닿는다.  
사랑해요. 엄마.



UN 가입경축

— 글짓기대회 —

입상작품



---

# 우리나라 좋은나라

---

횡성국민학교6년 이 석 정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40여년 간 기다려오던 유엔가입이 이제야 이루어 졌습니다."

오랫만에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뉴스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도 그렇게 즐겨보시던 야구경기도 안 보시고 유엔가입 소식이 흘러나오는 Tv화면 만 바라보셨다.

"아빠!"

나도 유엔가입소식을 들으니 궁금증이 생겼다.

아버지께서는 눈길은 TV화면으로 가 계시는데

"왜?"

라는 질문만 던지셨다.

"아빠!"

나는 한번 더 불렀다.

그제서야 아버지께서는

"왜 불렀니?"

하시며 눈길을 주셨다.

"아빠, 이번 유엔가입은 몇번째 인가요?"

"남한 아님 북한?"

"둘 다요."

"북한이 160번째 남한이 161번째 란다. 그게 궁금했니?"

"네 그런데 남한 따로 북한 따로 이야기 하는게 슬퍼요. 같은 땅덩어리 같은 나라 이면서도 북한은 160번째 남한은 161번째라고 남아 있어야 하는 게 말예요."

"그래, 벌써 이렇게 두 땅으로 갈라진지 40년이구나.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할텐데."

아버지께서는 어렸을적 겪었던 그 비참한 6.25를 생각하시면 고개를 숙이셨다.  
나는 이 이야기를 빨리 돌렸다.

“아빠 우리는 이전에 유엔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데요.”

“그래, 우리가 6.25를 겪었을 때도 유엔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지. 그래서 이제  
우리대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요 아빠. 하지만 우린 유엔에 도움만 받았지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진 못했  
잖아요.”

“맞아. 그런걸 생각하면 참 웃긴 일이지? 우린 올림픽사상 가장 대단하게 치루  
어 냈는데도 아직 유엔에 가입하지 못한걸 보면 그것 또한 이상한 일이야.”

“그래요 이상해요. 이 발전한 나라가 아직도 유엔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것이 믿  
어지지 않아요. 이제 유엔에 가입을 했으니까 많은 나라 가운데서도 큰소리 뽕뽕  
치면서 있겠죠?”

“에이 그런 소리 하면 못써.”

“어머 아빠두. 농담인데……”

“그래?”

우리는 신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우리가 40여년동안 기다려 왔던 유엔가입이 이루어졌음  
을 축하하는 마음도 들어있을 것이다.

난 이렇게 외치고 싶다.

‘우리나라 좋은나라!’



---

## 기쁨의 날

---

횡성국민학교4년 박 해 빈

나는 몇일전 텔레비전에서 떠들썩한 유엔가입에 대해 선생님께 여쭙었다.

선생님은

“우리 해빈이가 궁금증에 발동이 걸렸구나 그건 세계평화를 위한 단체이지.”

“세계평화를 위하다니요?”

“예를들면 6.25 동란때 우리의 자유를 위해 유엔에서 파견된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주었잖니 그러니 말하자면 그런 것 이라고 할 수 있단다.”

“선생님 그러면 다른나라가 자유를 찾으려고 노력할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네요.”

“그럼. 그럴 수 있단다.”

나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났다.

나는 어렸을때 누구의 도움을 받기를 잘하고 또 남이 나에게 도움을 주기를 바랬다.

연필깎이부터 옷매주기, 그네밀어주기 등을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막 떼를 썼다.

나혼자 해보려 하다가도 조금만 안되면 그자리에서 울고 그만 두어 버렸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울지 말아라.”

하고 달래며 해 주었다.

이것이 버릇이 되었는지 뭐든지 나혼자 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점점 크면서 보니 주위사람과 선생님 덕분에 많이 고쳐졌다.

그렇지만 내자신이 스스로 느껴서 고친 점도 많다고 생각한다.

‘이래선 안된다. 스스로 해보자’

---

하고 생각하다 보니 남의 도움을 바랬던 내 어린시절이 부끄러웠다.  
이제 우리 나라도 옛날처럼 남의 나라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해내고 다  
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 하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세계 강대국에서 인  
정을 받고 끝내는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지도 모르겠다.  
“선생님 그러면 유엔가입 기념일인 9월 17일은 노는날이 안되나요?”  
장난 꾸러기 동선이가 질문하자.  
“와—”  
아이들은 함성을 질렀다.  
선생님께서서는  
“나라의 역사적인 일을 노는 날로 연결 시키다니 어처구니가 없군.  
버릇없이”  
하시며 나무라셨다.  
정말 모든 어른들의 노력에 비해 우리는 너무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생각이 들  
었다.  
9월 17일!  
내가 이 다음에 선생님이 되어서도 우리반 아이들에게 지금처럼 기분으로 가르  
쳐야겠다.



---

# 통일이 어서 오길

성북국민학교3년 김 은 영

며칠전에 유엔에 가입이 되었다. 그때에 너무나도 기뻐다.

유엔에 얼마만에 가입 했는데 이제는 그것 보다도 통일이 되었으면 한다. 통일이 되어 북과 남한이 서로 오고 갔으면 하는데 통일이 되려면 몸을 튼튼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하고 우리 나라의 자랑거리를 발전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빨리 통일이 되어 남과 북이 오고 갔으면 그러면 같은 민족끼리 서로 만날텐데.’

통일을 앞당기어서 북과 남이 서로 친하게 지낼 것이다. 이산가족이 가족을 만나면 좋을 거다 그래서 꼭 통일이 되었으면 한다. ‘왜 전쟁이 생겨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 졌나 전쟁이 안생겼다면 남과 북으로 나누어 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나라는 자유국가이다. 북한은 명령을 내려서 그 일에 맞게 해야한다.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기뻐할거다 자유롭게 생활을 하니 말이다. 북한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을 매우 좋아 할거다 같은 민족을 만나서이다.

옛날에는 돈이 귀중해서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회사가 생기고 건물이 생겨 돈이 아까운 줄을 몰라서 그냥 물쓰듯이 막 쓰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 통일이 되려면 물건과 돈을 아껴 써야겠다 통일이 되려면 우리 나라 사람들은 돈을 아껴 써야 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져 우리나라를 빛내려고 하니 우리나라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대로는 사람이 무관심한 생각만 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교유의 전통을 이어 나가야겠고 우리나라의 잘못된 점도 고쳐나가야 겠다. 그리고 통일이 되려면 몸을 튼튼히 하고 공부도 잘하며 착한 마음씨도 키우고 우리나라의 잘 할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우리나라를 빛내야 겠다.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할 점을 생각하여 빛내야 겠다.

---

## 우리도 할 수 있어요.

---

공근중학교2년 원 현 식

지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갔다. 안방에는 들판에서 밭에서 돌아오신 부모님께서 TV를 보고 계셨다. 늦은 시간이라 부모님께서 이미 저녁 식사를 마쳐셨던 것이다.

웬지 모르게 짜증이 났다.

“학교 다녀 왔습니다.”

통명스러운 나의 말투에 깜짝 놀란듯 엄마께서 문을 열고 반겨 주셨다. 하지만 나는 전혀 반갑지 않았다.

“엄마는 깜깜한데 마중 좀 나오시면 안돼요? 다른 엄마들은 안 그러신다던데……”

“미안 하구나. 엄마가 너에게 너무 소홀한 것 같구나. 배고프지? 엄마가 얼른 밥상 차……”

“배 안 고파요.”

엄마의 말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뿌리 쳤다.

이력 저력 우울한 기분으로 침대에 누웠다. 아무리 뒤척뒤척 잠을 자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았다.

그때 였다. 안방에서 새어 들어오는 TV뉴스 소리가 내 귀를 솔깃하게 했다.

“우리 겨레가 그토록 갈망하던 U·N 가입이 결코 남의 일 만은 아닙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정식으로 UN회원국 자격으로 가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북이 동시에 가입하게 되어……”

그 다음은 잘 들을 수 없었다. 아빠 엄마가 치시는 박수 소리 때문이다. 무척이나 기쁘신가 보다. 나 역시 정말 표현 할 수 없을 만큼 기뻐했다.

그렇다. 나는 평소 뉴스를 즐겨보는 편이라 UN 가입에 대한 앵커들의 말을 여러번 들은 기억이 있다. 어렸을 때에는 중국과 소련의 반대로 UN에 가입 못 한다

---

는 소리를 듣고 꽤나 중국이나 소련을 시기하고 질투 했었다. 웬지 지금 생각하기엔 쪽스럽고 창피했다.

중학생이긴 하지만 아직 UN 가입에 대해 자세히는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국제기구라는 것만은 확신한다. 안방으로 건너가 아빠께 UN 가입에 대한 도움말을 듣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한테 부렸던 심통 때문에 겁이 났다.

“엄마, 아까는 제가 잘못했어요. 괜히 짜증이 나서 그만……”

“알고 있단다. 그런데 왜 일이니?”

“아빠 UN 가입이 뭐예요? 방금 뉴스에서 방영하던데……”

아뭏속에 묵묵히 앉아 계시던 아빠께서 여러가지 도움 말씀을 해 주셨다. 하지만 내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다.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캄캄한 지붕 처마 밑 자루에 걸터 앉아 수 많은 별들과 달님을 바라 보며 곰곰히 생각했다.

‘달님, 우리나라가 UN에 가입했대요. 아참 달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니 벌써 알고 계시겠죠? 기쁘시죠? 저는 무척 기뻐요 하지만 한 편으로는 아쉬워요. 조금만 더 일찍 북한과 나란히 손 잡고 하나의 통일된 국가 자격으로 가담했다면 더욱 더 좋았을 텐데요.’

‘아참, 달님 또 생각 난 말이 있어요. 어때요 달님! 우리나라도 할 수 있죠. 비록 조그만 땅이지만 노력만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가구요.’

기쁜 와중에도 아까 전의 생각 때문에 마음 한 구석이 싸늘 했다.

11시를 알리는 괘종시계의 종소리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

## 따로 따로 다시 하나로

대동여자중학교2년 최혜숙

우선 우리나라의 UN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비록 남·북한이 따로 따로 가입을 했지만 북한이 UN에 가입을 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북한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되고 개방의 문을 열수도 있는 기회가 바로 UN 가입이 되는 수도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라디오에서 매일 나오는 얘기가 있다.

처음엔 UN가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나 생각도 했는데 이제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할머니는 날 붙들고 틈만 나시면 UN 가입에 대해 물어보셨다.

할머니의 관심사는 남한의 UN 가입이 아니라 북한의 UN 가입인 것이다.

할머니는 통일을 애타게 기다리신다.

난 통일이란 것이 잘 감이 잡히지 않는다. 전쟁을 겪어본 윗 세대분들은 자유란 것 평화라는 것의 필요성을 간절히 원하신다. 우리들은 자유와 평화의 필요성을 모르니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가 없는 것이다.

매스컴을 통해 알게된 UN가입, 167개국이나 가입을 했다는 걸 보면 중요한 일 이긴 한가보다. 하지만 그리 기분이 좋지 못하다.

어찌 한 영토안에 같은 민족이 2개의 나라로 분리되어 가입을 했어야 하는가 한탄스럽다.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쩔 더 잘 된 일인지도 모른다. 평화적 가입을 계기로 서로 남북한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러다 보면 통일도 멀지 않은 것이다.

어른들의 생각은 뭐가 그리 복잡한지 난 도저히 이해 할수 없다. 서로 욕심이

---

없었다면 이런 분열은 아예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와서 통일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을 모두 어른들의 잘못인 것이다.

난 안 그럴 것이다. 아니 우리나라의 주인이 될 우리들은 UN에 가입하는 처지가 아닌 UN을 이끄는 큰 강대국이 될 것이다.

옛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서부터 천천히 욕심을 부리지 않고 왔더라면 UN에 가입하는 경사스러운 일을 오래전에 있었을 것을 무조건 빠른것만 택해서 천리길을 단숨에 가려는 욕심에 UN가입이 이제야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UN 가입에 따로 따로 가입을 했지만 머지않아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UN에 가입하는 경사를 맞이하리라 믿는다.

이제 한반도를 대표하는 깃발을 2개가 아니라 평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한개의 아름다운 한반도의 모습일 것이다.

'따로 따로 다시 하나로'



---

# 긴급 뉴스

---

우천중학교2년 장 하 용

우리 나라가 UN에 가입했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된 것은 사회 시간이었다. 담당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다가 엉뚱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UN 가입에 관한 이야기가 수업중에 나온 이유도 그 중의 하나이다.

“뉴스에서 나온것 같이 우리 나라가 이제는 떳떳하게 161번으로 UN에 가입을 했지. 매년 마다 UN에 가입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이렇게 UN에 가입을 했으니 얼마나 기쁘니?”

하시며 UN에 관한 여러가지를 설명해 주셨다. 나는 텔레비전을 안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UN 가입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않았더라면 아직도 우리 나라의 UN 가입을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회 선생님의 말씀이 고마웠다.

나는 집에 오자마자 온 집안을 시끄럽게 했다. 왜냐면 UN 가입에 대한 정보를 집안 식구에게 알려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엄마, 엄마! 긴급 뉴스예요. 긴급 뉴스!”

“아니 긴급 뉴스가 뭐길래 이렇게 소란스럽게 얘기 하니? 차근 차근 말해 보렴!”

나는 엄마께

“오늘 사회 시간에 선생님께서 우리 나라의 UN 가입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 드릴려구요.”

하며 열심히 긴급 뉴스를 전해 드렸다.

한참 동안 나의 말을 들으시던 엄마께서 갑자기 큰 소리로 웃으시는 것이다.

난 내가 잘못 이야기했는가 생각하며

“엄마, 왜 웃으세요?”

하고 여쭙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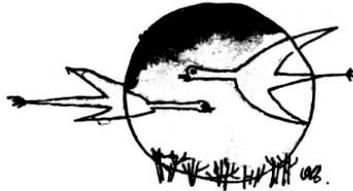
---

엄마께서 웃음을 멈추시고는 이렇게 말씀 하셨다.

“긴급 뉴스를 이 엄마는 먼저 알고 있었는데 미안해서 어찌지? 네가 UN 가입을 기뻐했듯이 나도 무척 기뻐했단다. 40여년 동안 UN 가입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니?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 졌으니 우리 나라의 경사지. 더군다나 북한과 동시에 UN에 가입했으니 더 더욱 기쁘지! 그런데 한 민족으로서 분열 상태로 따로 가입 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구나! 하용아! 너가 커서 꼭 한 나라로 UN 가입국이 되도록 노력해라.”

엄마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나서 곰곰히 생각 해 봤다. 40여년 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꿈꾸던 UN에 가입한 것은 정말로 큰 경사이다. 더군다나 북한과 동시에 가입 한 것도 경사이다. 하지만 통일된 국가로서 UN에 가입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는 UN에 가입한 국가로서 세계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크게 이바지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 우리 국민의 힘으로 국가가 평화스러워야 될 것이며 나같은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여 나라를 발전 시켜야 될 것이다. 이런 국민의 과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UN 가입에 대하여 생각 해 본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뻗듯하다.



---

## 마음의 문이 열린 한반도

횡성여자고등학교2년 박 윤 희

한반도 국토에 질어가는 가을과 인간 생활의 아름다움이 이제 결실을 맺어가는 황금 들판처럼 값지게 보인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말한다. 눈앞에 펼쳐진 들판에는 황금물결이 소리없이 일렁이고, 높게 떠있는 하늘에는 푸르름과 흰구름이 한반도의 안정됨을 더욱 진실되게 만든다.

언제나 다정스러운 조국 한반도.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한반도는 늘 허전함과 안타까움을 간직하며 살아간다.

결코, 크지 않은 나라, 결코 원수가 될 수 없는 우리 한민족 동포들. 그러기에 언젠가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을때 우리는 하나같이 뜨거운 눈물과 기쁨에 겨운 마음을 나누적도 있었다. 언제부턴가 우리 남한에서는 마음을 열고, 북한에게 접근했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허식된 웃음과 아무런 의미도 담기지 않은 껌질만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하지만, 결코 지칠줄 모르는 대화로 우리는 오곡이 익어가는 것처럼 커다란 결실을 얻게 되었다. 바로 남북한 UN 동시 가입이라는 열매이다. 이 열매는 우리 한반도에 우뚝 솟아오른 아침해와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이제 비로소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말을 조금 가능하게 하는듯 하다.

솔직히 나에게서 통일이라는 의미가 그리 큰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입으로만 원하는 그런 통일이었다. UN동시 가입을 위해 회담이 계속될 때에도, 난 별로 긍정적이지 못했었지만, TV에서 동시 가입이 확정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나도 모르게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비로소 그때에 서야 언젠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때 독일인들이 느꼈던 그런 환희를 이해할 수 있을것 같았다.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이산가족들에게는 더없는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가슴을 울리던 6.25의 아픔도 이제는 통일의 기쁨으로 교환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제 다시 UN 동시가입의 기쁨을 잠시 가라앉히고 보다 진실된 마음으로 대화를 계속해서 마음이 화합되는 통일을 이룩해야겠다. 이젠 불안과 초조보다는 기쁨의 눈으로 그리고 관심있는 눈으로 남북대화를 들어야겠다.



---

## 세계로의 발돋움

---

둔내고등학교 이 미 자

언제나처럼 나는 밝은 햇살을 받으며 학교에 등교했다. 조회를 하시려고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더니 기쁨 소식이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가 국제 연합에 가입했다고 말씀하셨다. 선생님께서는 또 국제 연합에 가입하기까지의 과정을 말해 주셨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세계 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목적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설립된 국제 연합은 날이 갈수록 그 행사력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는 UN에 가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임 이사국인 소련과 중공의 거부권 행사로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남북한이 함께 가입했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이젠 남북관계의 어려움이 다소 해결 될 것이고 통일이 빨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이 UN에 가입했다는 것은 개방의 첫시작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쁘지요? 또 통일이 될 것 같지요?"

선생님께서서는 무척 기쁘신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냥 기쁜 마음이 들었다.

우리 나라가 국제 연합에 가입했다는 것이 처음엔 왜 기쁘지 몰랐으니 집에 돌아와 신문을 보고나서야 선생님께서 기뻐하시던 까닭을 알았다.

세계적인 모임이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은 언제나 참관국에 불과했었다. 한국의 문제를 토론하는 회의에서도 한국은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빠른 시간안에 놀랄만한 발전을 한 우리 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UN 가입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젠 세계 어느 모임에서건 한국의 위치가 보장되었으며 발언권이 강해졌음이 나를 기쁘게 했다. 또 북한과의 대화의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이리저리 핑계를 만들어 대화를 회피했던 북한을 이젠 한반도가 아닌 세계적인 무대에서 당당하게

---

만날 수 있음이 매우 만족스럽다.

우리 나라가 지금의 부족한 면을 보충하고 난 후에는 강대국을 능가하는 국력을 가지고 국제 연합 회원국이 아닌 주도국으로 발돋움 할 것이다.

기술을 혁신하고 유대 민족같은 단결력을 지닌 국민성을 함양하며 마지막으로 민족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한다면 세계의 초점은 한국에 모아질 것이며, 한국은 최고의 국민성을 자랑하는 선진국이자 강대국이 될 것이다.

한국이 국제 연합에 가입한 이 시점에서 나는 회원국으로서가 아닌 주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나라 대한 민국에 있음을 믿는다.

나는 그 때의 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시간 시간을 노력과 성실로써 다져갈 것이다. 나를 위하기 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근면하고 충실한 시민이 되고 싶다.



## 임원명부

직책	성명	직장 및 주소	전화번호	비고
원장	윤재택	횡성읍 읍하리 94	43-2121	
부원장	권용환	횡성읍 읍상리 359-2	43-4396	
이사	조경택	횡성읍 읍상리 274	43-2742	
이사	이병현	횡성읍 입석리 188	43-2874	
이사	정재영	횡성읍 읍상리 동원 아파트 507호	43-3326	
감사	도희관	횡성읍 읍상리 276-3	43-2964	
감사	진기범	횡성읍 읍상리 278-7	43-2687	

## 회 원 명 부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비고
원 장	윤재택	횡성읍 읍하리 94	상 업	43-2121	
부원장	권용환	횡성읍 읍상 1리 359	교 사	43-4396	
이 사	조경택	횡성읍 읍상 3리	상 업	43-2742	
"	이병현	횡성읍 입석리 188	교 사	43-2874	
"	정재영	횡성읍 동원아파트 507호	교 사	43-3326	
"	유영길	횡성읍 읍하 1리 115-5	상 업	43-4192	
감 사	도희관	횡성읍 읍상리 276	상 업	43-2376	
"	진기범	횡성읍 읍상리 280-5	상 업	43-2687	
회 원	한중희	횡성읍 읍하 1리 80-2	의 사	43-2579	
"	김정기	횡성읍 마산리 326	사무원	43-4360	
"	이관술	횡성읍 읍하리 92-1	사무원	43-3344	
"	홍재욱	횡성읍 읍상리 277	수의사	43-2246	
"	이종성	공근면 학담리 143-2	농 업	42-3225	
"	김정웅	횡성읍 읍상리 313	약 사	43-2707	
"	이상천	횡성읍 읍하리	숙박업	43-2607	
"	박충원	횡성읍 읍상리	상 업	43-3221	
"	박순갑	둔내면 자포리 409	약 사	42-1024	
"	김상원	횡성읍 읍상리	상 업	43-2796	
"	김명수	횡성읍 읍상리	상 업	43-2549	
"	정두영	횡성읍 읍하리 366	인쇄업	43-2404	
"	함소훈	횡성읍 읍하리 93	한약업자	43-2636	
"	한창일	횡성읍 읍상리 310-4	사무원	43-2271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비고
회 원	정병용	횡성읍 읍상리 284	요식업	43-2335	
"	변규성	횡성읍 읍하리 102-6	운수업	43-2450	
"	한상근	횡성읍 읍상리 288-11	양조업	43-2720	
"	전인환	횡성읍 학곡 1리 113	사무원	43-4813	
"	윤춘식	횡성읍 읍상리 333	공무원	43-3349	
"	고락홍	횡성읍 교항리 61-1	공무원	43-2855	
"	김상겸	횡성읍 마산리 451	공무원	43-3514	
"	송인호	횡성읍 읍상리	보건업	43-3015	
"	유경희	횡성읍 입석리 173	공무원	43-2390	
"	이일영	횡성읍 읍상리 69	양복점	43-2669	
"	정병익	횡성읍 입석리 150-6	사무원	43-4813	
"	민영석	횡성읍 읍하리 363	상 업	43-2664	
"	이철구	횡성읍 읍하리 543-13	토건업	43-2358	
"	정계항	횡성읍 읍하리	토건업	43-2441	
"	한상동	횡성읍 읍상리 276-15	상 업	43-2505	
"	정호일	횡성읍 읍상리 36-12	농 업	43-2275	
"	최사승	횡성읍 읍하 1리 94-10	보건업	43-2212	
"	진기원	횡성읍 입석리 19	농 업	43-2821	
"	엄기호	횡성읍 곡교리 139	협 장	43-0004	
"	윤재기	횡성읍 읍하 1리 110	상 업	43-2233	
"	한상인	횡성읍 읍하리		43-2363	
"	민인기	횡성읍 곡교리	회사원	43-3396	
"	김 의 자	횡성읍 입석리 188-2	교육공무원	43-2304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비고
회 원	김 성 기	횡성읍 가담리 186	교 사	43-4255	
"	강 선 규	우천면 정금 1리 849		42-2854	
"	정 삼 영	횡성읍 읍하 3리 214-6	공무원	43-3130	
"	허 남 열	횡성읍 모평리 96	농협장	43-3018	
"	민 영 진	횡성읍 읍상 3리	건축업	43-2965	
"	김 정 희	횡성읍 읍하리 재림아파트402호	교 원	43-0566	
"	구 본 섭	횡성읍 읍하3리 251-54	상 업	43-1000	
"	박 중 일	횡성읍 가담리 50	사진업	43-3259	
"	조 형 정	횡성읍 청용리 175	교육업	43-3220	
"	이 석 원	횡성읍 읍상 1리 346	상 업	43-3518	
"	김 영 학	횡성읍 읍하리 116-9	상 업	43-0259	
"	박 중 훈	횡성읍 읍하 1리 95-2	상 업	43-9944	
"	남 문 섭	횡성읍 북천리 126	회사원	43-4125	
"	임 최 순	횡성읍 읍상리 386-12	광고업	43-8090	
"	원 종 춘	횡성읍 읍하 1리	한림서당	43-3162	
"	임 화 순	횡성읍 읍하리 116-9	광 고	43-2949	
"	정 재 혁	횡성읍 읍상리 291-13	대영전업사	43-5001	
"	최 강 현	횡성읍 읍상1리 346	상 업	43-2229	
"	박 승 기	횡성읍 읍하3리 251-53	상 업	43-0222	
"	김 원 영	횡성읍 읍하3리 249-3	운수업	43-3132	
"	장 성 희	횡성읍 중앙아파트 5-507	공무원	43-4751	
"	진 연 문	횡성읍 청용리 226	상 업	43-5544	
"	유 재 준	횡성읍 읍하1리 112	상 업	43-9483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비고
회 원	조 원 열	횡성읍 추동리 1반	전화국	43-5088	
"	박 경 용	횡성읍 읍하 1리 302-1	상 업	43-2332	
"	원 동 용	횡성읍 읍상리 동원주택 301호	공무원	43-1188	
"	김 승 현	횡성읍 읍하3리 251-54	상 업	43-2773	
"	박 상 선	횡성읍 읍하리 2반 368	상인마을금고	43-3059	
"	한 장 희	횡성읍 읍하 3리 251	공무원	43-0910	
"	석 인 국	횡성읍 읍하 3리 251-51	회사원	43-3735	
"	홍 승 익	우천면 정금리	농 업	42-2671	
"	양 중 하	우천면 정금리	농 업	42-2602	
"	이 종 호	우천면 정금리	농 업	42-2647	
"	이 철 우	우천면 정금리 507	농 업	42-2665	
"	김 갑 봉	횡성읍 읍상 5리 1반 130	교육공무원	42-6084	
"	탁 락 구	횡성읍 교항리 58		43-2573	
"	최 성 침	서원면 압곡리 160		42-8188	

## ○ 1991년도 문화사업 실적

### 1. 청소년 신년음악회 개최

- 일 시 : 1991. 1. 5. 19 : 00
- 장 소 : 횡성문화관
- 참관인수 : 325명

### 2. 미술전시회 개최 (그림샘)

- 일 시 : 1991. 2. 22~24 (3일간)
- 장 소 : 횡성문화관 전시실
- 작 품 량 : 30점
- 참관인수 : 317명

### 3. 여성교양강좌 개최 (읍. 면순회)

- 일 시 : 1991. 3. 28~4. 2 (5일간)
- 장 소 : 읍, 면회관
- 참가대상 : 새마을 부녀회원
- 참가자수 : 478명
- 주 제 : 여성의 덕

### 4. 청소년 학생 백일장 개최

- 일 시 : 1991. 4. 26
- 장 소 : 횡성문화관 및 보조장소
- 참가대상 : 군내 초, 중, 고학생
- 참가인원 : 343명
- 시상인원 : 42명

### 5. 연극 발표회 (극단 "섬강")

- 일 시 : 1991. 5. 3~4 (2일간)
- 장 소 : 횡성문화관

○참가인수 : 372명

#### 6. 동화대회 개최

- 일 시 : 1991. 5. 8
- 장 소 : 황성문화관 전시실
- 참가자수 : 14명
- 참가인수 : 87명
- 시상자수 : 4명

#### 7. 효행학생 표창

- 일 시 : 1991. 5. 8
- 장 소 : 황성문화관 전시실
- 후보자수 : 17명
- 표창자수 : 3명 (초, 중, 고 각1명)

#### 8. 단오절 민속행사 개최

- 일 시 : 1991. 6. 15
- 장 소 : 섬강체육공원
- 종 목 : 1. 민속씨름대회
  - 단체전 7개팀
  - 개인전 18명
- 2. 민속그네대회
  - 개인전 27명
- 시 상 : · 씨름단체 3개팀
  - 씨름 개인 4명
  - 그네대회 개인 5명

#### 9. 청소년 학생 사생대회 개최

- 일 시 : 1991. 7. 26
- 장 소 : 3, 1공원
- 참가대상 : 군내 초, 중, 고학생
- 참가자수 : 763명
- 시상자수 : 80명

**10. 향토 유적지 순례**

- 일 시 : 1991. 7. 29
- 순례지 : 강림지역 (태종대, 노고소, 의병총, 수력발전소)
- 참가대상 : 중, 고학생
- 참가인원 : 45명

**11. 청소년 문화 강좌**

- 일 시 : 1991. 8. 10~13(4일간)
- 장 소 : 횡성문화관
- 참가대상 : 초, 중, 고학생
- 참가인원 : 283명
- 주 체 : 애향심

**12. 유엔가입 경축 청소년 글짓기 대회 개최**

- 일 시 : 1991. 10. 5
- 장 소 : 3,1공원
- 참가대상 : 군내 초, 중, 고학생
- 참가인원 : 317명
- 시상인원 : 22명

**13. 제 10회 태풍문화제 개최**

- 일 시 : 1991. 10. 25~26(2일간)
- 장 소 : 공설운동장, 시내일원, 보조장소
- 참가대상 : 군민
- 참가인원 : 2,000명

**14. 발간사업**

- 경로효친사상 선양 교재 발간 500부
- 향토 사료집 발간(제 10호)1,000부
- "어사매"발간(제 8호) 1,000부

## 편집 후기

激動의 한해가 歷史의 저편으로 사라져 갔다.

걸프전의 뜨거웠던 열기도……

크레믈린궁 앞의 페레스트로이카의 함성들도……

또한忍冬草처럼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실로 40년 만에 지방자치가 확실한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다가섰다.

橫城文化의 진정한 르네상스 도래를 양 어깨에 짊어질 새로운 신규회원과 새 임원진이 개편 되었다. 정말 반갑고 기대 또한 크다.

그동안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8집의 “어사매”가 우리들 손에 쥐어지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다. 진정한 향토文化의 보루로서 내고향의 일을, 횡성을 사랑하는 모든이들에게 전해 주자는 의욕으로 덤벼들었으나, 마감하고 나니 아쉽고 미진하기만 하다.

훨씬 앞차고 성숙된 來年の 9집을 기대하며……



편집위원 : 정재영 · 권용환  
이병현

## 어사매

---

인쇄일	91. 12. 25
발행일	91. 12. 30
발행인	황성문화원장
편집	어사매 편집실
인쇄	강원출판사

---

(비매품)